



**WORLD
WE
AC
S
E**

ISSUE #12

WORLD HAUS OF MATTERS

ISSUE #12

CREDITS

INTRODUCING

자카 BlackMatter denim snxo Songchico

FULL REVIEW

moogsick denim ryuzimoto snxo 자카

CLASSIC REVIEW

온암 예리

FEATURED

공ZA BlackMatter 자카 denim SongChico 온암

EDITOR'S PICK

자카 BlackMatter 온암 감상주의 ryuzimoto

DESIGN

nhana

CONTENTS

INTRODUCING



FULL REVIEW



CLASSIC REVIEW



FEATURED



EDITOR'S PICK



INTRODUCING

FULL REVIEW

CLASSIC REVIEW

FEATURED

EDITOR'S PICK

**WORLD HAUS OF MATTERS
W/HOM**



In Sexyy We Trust Sexyy Red

TRACK 1. Tim Talking / 2. She's Back / 3. Boss Me Up / 4. U My Everything (Feat. Drake) / 5. Ova Bad / 6. Get It Sexyy (writers: Christopher Dooley, Jamaal Parker, Janae Wherry, Juan Salinas, LeQuinston Smith, Oscar Salinas) / 7. Fake Jammin / 8. Outside (Feat. Mike Will Made-It) / 9. Sexyy Love Money (Feat. VonOff1700) / 10. Sport / 11. TTG (Go) / 12. Lick Me (Feat. Lil Baby) / 13. Awesome Jawsome / 14. It's My Birthday

DATE 2024. 05. 24

EDITOR 자카

섹시 레드(Sexyy Red)는 현재 힙합씬에서 가장 뜨거우면서 동시에 호불호 또한 가장 극명하게 나뉘는 아티스트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필자는 불호 쪽의 입장이었다. 그녀의 컨셉이나 톤에는 처음에 굉장히 거부감이 들었으나, 몇 번 반복해서 감상하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가장 불만이었던 점은 바로 난잡함이다. 그것도 완전히 불필요한 난잡함 말이다. Chief Keef를 나사 한 구석 빼지게 오마주한 트랩 음악, 일관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주제 등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중점적으로 두어 접근해 보면, <In Sexyy We Trust>는 확실히 별전한 결과물이다. 분명 여전히 난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꽤 존재 하지만, 그럼에도 확실히 깔끔해진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He like the way I whip the 'Vette, he wanna give me a pickle'를 비롯한 재밌는 라인들 역시 그녀의 개성을 잘 드러내는 요소 중 하나이다. Drake가 참여한 "U My Everything", Lil Baby가 힘을 보텐 "Lick Me" 등 암담한 트랙들이 아직은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지만, 섹시 레드의 작품에 '별로'라는 평가는 내릴 작품은 아마 본작이 마지막이 될 듯하다. <In Sexyy We Trust>는 그녀의 캐릭터와 개성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표현한 작품이며, 일명 Hood Hottest Princess 신드롬이 2023년 여름에 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에 대한 증명과도 같다.

Mortem Solis Turnabou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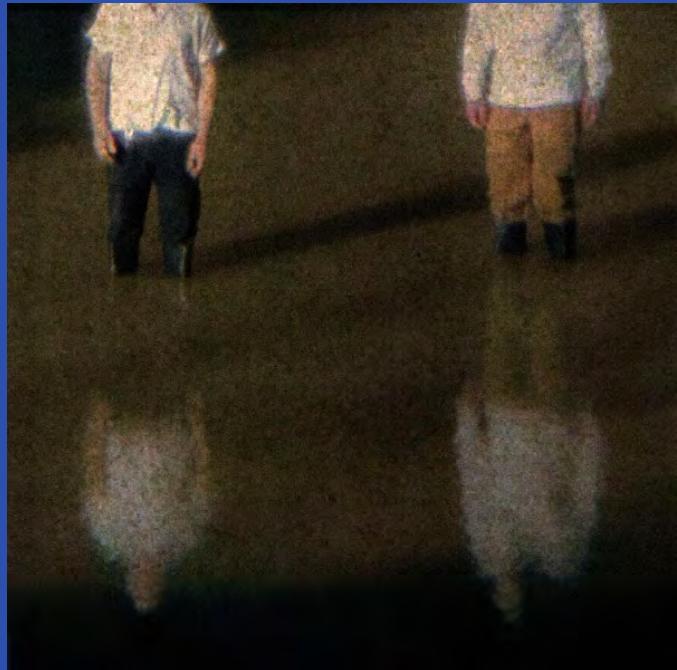
TRACK 1. Mortem Solis (Intro) / 2. Wraf / 3. Don't Go Outside (Feat. White Ring) / 4. Im On Fire / 5. Getting Cold / 6. Kill Us 2 / 7. Disgrace

DATE 2024. 05. 30

EDITOR BlackMatter

위치 하우스(Witch House)는 꽤나 이상한 장르다. Vaporwave에 큰 영향을 준 Seapunk와 Trap의 결합으로 탄생한 위치 하우스는 이름과는 달리 하우스의 서브장르로 보기 어렵다. 빌드업에서 드랍으로 이어지는 특성으로 인해 강한 트랩적 성격에도 하우스로 불리게 된 이 장르를 Horrorcore와 Chicago Drill에 결합시킨 음악을 선보이는 레이블 Haunted Mound 출신의 Turnabout은 3월 발매됐던 EP <Obscura Noctis Mors>에서 드릴로 탈피한 순수 위치 하우스를 선보였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발매된 첫 정규 앨범 <Mortem Solis>는 Obscura Noctis Mors Part Two라는 또 다른 이름에 걸맞게 이 방향성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태양의 죽음을 뜻하는 제목을 가진 본작은 위치 하우스의 가사와 비주얼 컨셉을 뛰어난 퀄리티로 선보인다. 레이블을 떠난 턴어바웃의 마녀 의식과 악마 송배, 컬트 집단으로 점철된 매니악한 장르에서의 새로운 발걸음은 그가 SALEM 등의 아티스트를 이어받아 새로운 세대의 위치 하우스 대표 주자가 될 가능성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INTRODUCING



i5u5we5 Homicide Gang

TRACK	1. Sharp ShOOter / 2. VersionFIVE / 3. SIDE EFFExT (Feat. Lil Yachty) / 4. FA5EBUSTER / 5. SRT / 6. SwanTon BOMB / 7. FiGure5 [INTERLUDE] / 8. R50 / 9. DeathLOK / 10. 2xTREME / 11. OO-MEGA / 12. HI-VOLTAGE / 13. SMAKDWN / 14. TABLESandLATTER5
DATE	2024. 05. 31
EDITOR	BlackMatter

근 몇 년 동안 큰 유행을 이끈 Rage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장르 전체에 만연해 있는 자가복제성이다. Playboi Carti와 같이 장르를 대표하면서도 단 하나뿐의 레이지 앨범을 발매한 아티스트를 제외한다면 OPIUM 사단과 Yeat 등의 레이지 아티스트들은 그들의 앨범에서 발견되는 긴 러닝타임과 반복성을 끊임없이 지적받아왔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 속에서도 청각적 쾌감을 선사하는, 꽤나 괜찮은 완성도의 앨범들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 오피움 소속의 래퍼 듀오 호미싸이드 갱(Homicide Gang)의 두 번째 믹스테이프 <i5u5we5>는 이처럼 듀오가 이어온 사운드 계보를 반복하면서도 즐거움만은 반드시 행겨가는 앨범이다. Trap과 레이지 기반의 사운드와 일부 트랙에서 발견되는 일렉 기타는 <Snotty World>와 <5TH AMNDMNT> 등 호미싸이드 갱의 대표작에서 꾸준히 발견되어온 공통분모지만, 트랙의 짧은 러닝타임과 자극적인 래핑으로 분비되는 도파민, 그리고 경박하면서도 재치있는 두 래퍼의 주임새와 티키타카는 서로 다른 톤의 결합으로 화하며 효과적으로 지루함을 제거해 준다.

YOUTH GROUP William Crooks

TRACK	1. THE END / 2. CAVIAR / 3. LOSER / 4. LOSS / 5. SACRILEGIOUS / 6. ST. ELSEWHERE / 7. DeKABOUTER / 8. GENESIS
DATE	2024. 05. 31
EDITOR	denim

취향대로 창작한다는 것은 말보다 어려울지도 모른다. 지향점이 확고한 만큼 모든 요소가 머릿속 그림과 일치해야 할 테니 말이다. 하지만 그렇게 빛어진 결과물은 반드시 유일무이할 터. 이는 윌리엄 크룩스(William Crooks)의 최신작 <YOUTH GROUP>을 두고 할 수 있는 이야기다. 고막을 연신 때리다 못해 찢을 정도의 베이스 굉음과 출처를 알 수 없는 과파한 랩 스타일은 10년 전 사운드클라우드 래퍼들의 광기를 그대로 계승한 듯하다. 그러나 아마추어의 미성숙함과 크룩스의 계산된 훈련에는 그의 도성에 있어 확인한 차이가 있다. 지우는 것이 일반적인 클리핑 노이즈나 글리치를 일부러 구현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정교함만 보아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3분이 채 안 되는 트랙 속 다양한 형태의 신스와 본인 목소리를 겹쳐가며 2-3번의 비트 체인지를 실현하는 전개는 크룩스의 전 매특허다. 이번 작품에선 "ST. ELSEWHERE"를 통해 이를 가장 완벽히 표현해냈으며, 특히 후반부의 드롭은 그야말로 응축된 분노가 폭발하는 인상을 준다. 앨범의 공동 프로듀서로 이를 옮긴 애이크(ache)의 공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비건(Vegyn)을 연상시키는 앰비언트 트랩을 오랜 기간 가공해온 그는 사운드의 질감을 우선시하는 크룩스의 파트너로서 더 할 나위 없다. 두 아티스트의 합은 그야말로 백문불여일견: 글로는 그들의 에너지를 전달할 수 없으나 반드시 직접 느껴보길 권한다.

INTRODUCING



The Script Dina Ayada

TRACK 1. 100 Bands / 2. There's a Way (Feat. KayCyy) / 3. Lovesick / 4. I See It / 5. Lights / 6. Hummer / 7. Starlight

DATE 2024. 06. 07

EDITOR BlackMatter

벨기에 앤트워프 출신의 여성 래퍼 Dina Ayada가 2023년 발매한 <SUPERSTAR!> 이후 대략 반 년만에 두 번째 EP로 돌아왔다. 전작에서 레이저를 가미한 팝 랩으로 여성 래퍼만이 보여줄 수 있는 느낌을 선보였던 디나 아야다는 본작에서 조금 더 정석적인 팝 랩을 보여준다. KayCyy 단 한 명의 피쳐링만을 포함한 채 진행되는 20분 분량의 EP는 팝 랩 앨범이 으레 그렇듯이 클리세로 그득하다. 전작에서 벌전이라고도 퇴보라고도 볼 수 없는 본작은 20분간 한 순간의 번뜩임도 찾아보기 어려우며 몇 곡만으로 나마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신기한 것은 이가 지루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드러운 음색 덕분일까, 익숙하면서도 꾸준히 질리지 않는 국밥같은 맛 때문일까. 아티스트의 커리어에 지금히 뻔하고 평범한 하나의 마일스톤으로 남을 본작이 두렷한 퇴보는 아니라 점에 감사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Born in the Wild Tems

TRACK 1. Born in the Wild / 2. Special Baby (Interlude) / 3. Burning / 4. Wickedest / 5. Love Me JeJe (Feat. Asake) / 6. Get It Right / 7. Ready / 8. Gangsta / 9. Unfortunate / 10. Boy o Boy / 11. Forever / 12. Free Fall (Feat. J. Cole) / 13. Voices in My Head (Interlude) / 14. Turn Me Up / 15. Me & U / 16. T-Unit / 17. You in My Face / 18. Hold On

DATE 2024. 06. 07

EDITOR snxo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는 나이지리아의 라고스에서 태어난 Tems의 첫 정규 앨범, "Born in the Wild"는 제목 그대로 나이지리아와 영국을 넘나들며 야생과도 같은 환경에서 자라온 자신의 삶에 대해 털어놓는 전기작이다. 기존 피쳐링 곡들을 비롯한 본인의 음악에서 뛰어난 인상을 주었던 Tems 특유의 나이지리아 악센트와 음색은 본작에서도 역시 빛을 발하지만, 가장 돋보이는 요소는 바로 앨범의 주제로서 본인의 여성에 우직하게 청자들 몰입시키는 그녀의 프로듀싱 능력이다. 가나 출신의 아프로팝 DJ 프로듀서 GuityBeatz와 함께 앨범 대다수의 수록곡을 직접 프로듀싱한 그녀는 나이지리안 소울 음악과 모던 알앤비, 댄스홀, 그리고 팝 사운드를 적재적소에 사용하고 융합한다. 올해 초 Tyla가 유행시킨 아프로팝 열풍에서 벗어난, 오로지 자신만의 독립적인 아프로팝을 정립시킨 것이다. 자신의 신앙과 사랑, 트라우마와 추억을 더없이 아름답게 속삭이는 그녀의 음색은 청자들로 하여금 그녀의 깊은 소울 안에 빠지게 만들며 그녀의 다음 챕터에 대한 기대를 한없이 높인다.

INTRODUCING



11th Dimension Ski Mask The Slump God

TRACK 1. DragonTooth / 2. Monsters Inc (Feat. Future) / 3. By Myself / 4. Earwax / 5. Full Moon / 6. Part The Sea / 7. Jah's Interlude (Feat. XXXTENTACION) / 8. WDYM / 9. Tuk-Tuk / 10. Wake Up! (Feat. Juice WRLD) / 11. Hulk / 12. Headrush / 13. Frozen One / 14. KillStreak / 15. From Yard (Feat. Skillibeng) / 16. Him Jung Un / 17. Let It Breathe / 18. Mandalorian / 19. Jump / 20. Shibuya / 21. Go! (Feat. Corbin)

DATE 2024. 06. 07

EDITOR 자카

스키 마스크 더 슬럼프 갓(이하 스키 마스크, Ski Mask The Slump God)의 6년 만의 새로운 정규 앨범 <11th Dimension>은 Future가 피처링으로 힘을 보탠 트랙 "Monsters Inc."로 순조롭게 출발한다. 그러나 앨범이 끝에 다다를수록, 너무나도 지루하고 집중해서 들어주기 어렵다는 인상만이 남게 된다. 스키 마스크의 플로우는 2018년 <Stokeley>에서 거의 발전하지 않았으며, 되려 더 진부해졌다는 느낌을 들게 한다. 또 의구심만을 들게 하는 보컬의 막상 상태는 앨범을 망쳐놓은 주 원인이라 칭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대부분의 트랙이 양질의 비트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스키 마스크는 막상 그 비트를 따라가지 못하는 아쉬운 퍼포먼스만을 계속해서 보여주었다. 보컬과 래핑 모두 극단적으로 단조로워 전혀 흥미롭지 못하였으며, 코러스 역시 아마추어에 가까웠다. 물론 '최악', '끔찍하다' 등의 평가를 내릴 정도는 아닐뿐더러, 앞서 언급했다시피 굉장히 렌즈은 비트들이 많이 존재했기에 엄청난 거부감이 드는 작품은 아니다. 그저 50분 동안 이 앨범을 감상해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뿐이다. 그럼에도, 만약 당신이 가볍게 부담 없이 들릴 앨범을 찾고 있다면 — 조심스럽게 본작을 권한다.

Where the Butterflies Go in the Rain Raveena

TRACK 1. Pluto / 2. Lucky / 3. Rise / 4. Every Color / 5. Baby Mama / 6. Junebug (Feat. JPEGMAFIA) / 7. Lose My Focus / 8. We Should Move Somewhere Beautiful (Feat. Arima Ederra) / 9. Kid / 10. 16 Candles (Feat. Ganavya) / 11. Smile For Me / 12. Afternoon Tea with the Auroras (Interlude) / 13. Little Bird / 14. Water

DATE 2024. 06. 14

EDITOR BlackMatter

이 앨범을 왜 여름에 발매했을까. 첫 곡을 듣고 떠올랐던 생각이다. 역시나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Jazz와 Neo-Soul, R&B가 자랑하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새벽 감성은 앨범이 진행될수록 점차 선선한 여름밤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변해간다. Raveena의 세 번째 정규 앨범 <Where the Butterflies Go in the Rain>은 그 따뜻함과 부드러움 속에 상실을 담았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더욱 아련하게 다가오고 가슴 한구석을 아리게 한다. 인도와 미국이라는 혼합된 아티스트의 정체성에 걸맞게 본작의 사운드 또한 양국의 사운드를 이어받는다. 미국의 알앤비와 하프, 그리고 그 속 중간중간 모습을 드러내는 시타르와 같은 인도의 전통 악기는 비슷한 분위기를 선사하는 수많은 작품들 속 라비나가 구별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름표와 같다. 비가 올 때면 나비들은 잎사귀 밑으로 몸을 피한다. 맞서기엔 너무 거대한 빗방울이 우리의 몸을 때리려 할 때, 라비나가 2년 동안 지어온 햇살이 내리쬐는 창 옆 침대 속으로 몸을 피해보자.

INTRODUCING



When Angels Cry jev.

TRACK	1. ALICE. / 2. THE ART OF WAR (Feat. Daron Harris) / 3. VILLIANS THEME. / 4. THE FEEL\$ (Interlude) / 5. FAMOUS. / 6. SAVE A SPOT FOR ME. / 7. WINGS IN THE SKY. / 8. WIPE MY TEARS (Feat. August Charles) / 9. CALL ME BACK (Feat. Raemi) / 10. THE KILLER SHEWOLF. / 11. THE MAN ON FIRE (Interlude) / 12. WONDERLAND. / 13. THE SAMURAI'S MONOLOGUE.
DATE	2024. 06. 14
EDITOR	자카

모두가 주목해야 할 새로운 아티스트가 등장한 듯 하다. 남아프리카 콩고 공화국 출신의 24세 언더그라운드 MC, 제브(jev.)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제브는 이미 이전부터 언더그라운드 힙합 팬 사이에서 빠르게 유명세를 얻은 상태였다. 그의 곡 "where's the confetti?"가 Top 50 Viral 차트를 석권함과 동시에 스포티파이에서 매달 100만명 가량의 리스너 수를 기록하며, 제브는 점차 자신의 이름과 음악을 널리 알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를 세상에 알린 정규 1집 <the color grey.> 이후 2년 만에 발표된 신작 <when angels cry.>에서 그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낸 듯 하다. 블랙, R&B, 재즈, 오케스트라, 소울, 랩 톤 등 다양한 장르가 크로스오버되어 청자에게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신선한 맛을 주고, 자신의 사랑과 비극 등 자전적 주제들을 탁월한 스토리텔링 능력으로 풀어나간다. 자신 내면의 아이를 치유한다는 주제의 본작은 제브의 중요한 발자국 중 하나임과 동시에, 2024년 상반기 모두가 놓쳐서는 안 될 작품이다. Wu-Tang Clan을 연상시키는 샘플링 작업과 블랙 스타일, JID가 떠오르는 다채로운 래핑, Vince Staples와 맞닿아있는 현실성과 예술성이 융집된 본작은 몇 번을 방문해도 질리지 않을 상반기의 수작이다.

Fine Art Kneecap

TRACK	1. 3CAG (Feat. Radie Peat) / 2. Fine Art / 3. Interlude: Making Headlines / 4. I bhFiacha Linne / 5. Interlude: Never Gets a Round / 6. I'm Flush / 7. Interlude: State of Ya / 8. Better Way to Live (Feat. Grian Chattem) / 9. Sick in the Head / 10. Love Making (Feat. Nino) / 11. Interlude: Amhrán na Scadán / 12. Drug Dealin Pagans / 13. Interlude: KNEECAP Chaps / 14. Harrow Road (Feat. Jelani Blackman) / 15. Parful / 16. Rhino Ket / 17. Interlude: Last Orders / 18. Way Too Much
DATE	2024. 06. 14
EDITOR	Songchico

아일랜드는 8세기 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으며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기도, 영국에 대한 증오심을 키워가기도 했다. 아일랜드가 독립한 후에도 영국령으로 남게 된 북아일랜드는 영국의 식민주의와 아일랜드의 민족주의를 한 번에 흡수하며 혼란스러운 지역으로 남게 되었다. 3인조 랩 그룹, 니캡(Kneecap)은 이러한 북아일랜드의 수도, 벨파스트에서 결성되어 지금은 사실상 사장된 전통 아일랜드어를 사용하고, 그 이름부터 IRA가 자행하던 악행에서 따왔을 만큼 아일랜드의 민족주의를 표방하곤 한다. 니캡은 이런 민족주의를 심각하고 엄숙하게 다루기 보단, 익살스럽고 가볍게 툭 던져 놓는 데에 도가 튼 그룹이다. 이는 전작 <3CAG>에서도 그랬고, 정규 앨범으로 넘어온 본작에서도 유지되는 요소다. 텔트 컨트리를 샘플링한 화려한 드릴 트랙을 오프너로 내세우며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었지만 금방 키를 되잡고 그라임, 드릴, 개러지, DnB 등 강렬한 사운드 위에서 각종 악물에 취한 채 자신들의 광기를 더했다. 몇 번씩이나 '인터루드-트랙'의 형태로 진행되어 후반부로 갈수록 힘이 빠져버리고, 보편적인 사운드로 이어진다는 것은 전체적인 앨범 감상에 있어 아쉬운 점으로 남게 되었다. 하지만 걸모습도, 사상도 위험한 이들의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과격단체의 일원이 되어 그들과 스릴 넘치는 나날을 보내는 체험을 하는 듯해 충분한 재미를 선사했다.

INTRODUCING

EDITOR'S PICK

FEATURED

CASSIC REVIEW

FULL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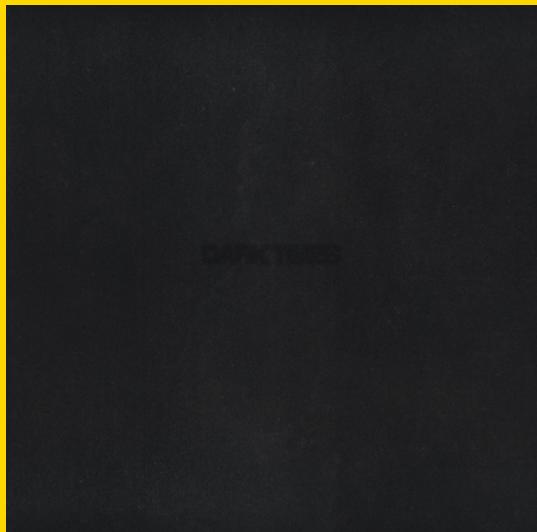
INTRODUCING

WORLD HAUS OF MATTERS
W/HOM

FULL REVIEW

DARK TIMES

VINCE STAPLES



DARK TIMES / VINCE STAPLES

2024. 05. 24 / by moogsick

- | | |
|-----------------------------|--------------------------------|
| 1 Close Your Eyes and Swing | 8 Justin |
| 2 Black & Blue | 9 Radio |
| 3 Government Cheese | 10 Nothing Matters |
| 4 Children's Song | 11 Little Homies |
| 5 Shame on the Devil | 12 Freeman |
| 6 Étouffée | 13 Why Won't the Sun Come Out? |
| 7 Liars | |

최근 힙합씬에서 극적인 스타일 변화를 시도한 아티스트 중 단연 두드러지는 이는 빈스 스테이플스다. 2014년 EP <Hell Can Wait>으로 화려하게 데뷔한 후 노 아이디의 총괄 프로듀싱으로 세상에 나온 걸작 <Summertime '06>, 잭 세코프를 필두로 다양한 전자음악 프로듀서를 초빙해 장르 간의 크로스오버를 선보인 <Big Fish Theory>까지 그가 걷는 길은 영원히 탄탄대로일 듯했다. 그러나 자신의 이름을 내건 <Vince Staples>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변화가 감지되었다. 프로덕션 면에서 이전의 약동하는 강렬함 대신 칠한 무드를 선보였으며, 다음 해 발매된 <Ramona Park Broke My Heart>까지 그러한 기조가 지속됐다. <Dark Times> 또한 기본적으로 같은 궤에 있으나 앞 두 장의 앨범과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는 바로 계속된 우울을 이겨내는 모습을 그려냈다는 데 있다. 제목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어두우며 희미한 올가미라는 심볼로 그가 몇 년간 겪었던 사건들을 함축해 보여주는 듯한 커버와는 반대로, 마지막 트랙 'Why Won't the Sun Come Out?' 말미의 새 지저귀는 소리는 끝내 밤이 지나갔으며 아침이 도래했다는 사실을 은유적으로 선포한다. <Ramona Park Broke My Heart>의 엔딩 'THE BLUES'가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되뇌임으로, 즉 문제 해결의 키를 타인에게 넘긴 데 그쳤으나 본작은 일련의 자기 치유 과정을 음악으로써 표출한 것이다.

전작들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그의 태도가 극도의 시니컬함이었다면 <Dark Times>를 지배하는 정서는 체념과 회한에 기반한다. "To live is to be, like the nigga in the tree — 살아간다는 것은, 나무에 있는 흑인처럼 되는 것이다"라는 의미심장한 문장에서 시작된 그의 고찰은 Nipsey Hussle과 Drakeo The Ruler 등 자신의 곁을 떠난 동료들("Black&Blue"), 아직도 범죄와 가난에 찌들어 살아가는 룽비치 사람들("Government Cheese")까지 이어진다. 과거의 그라면 부조리한 현실을 만든 지도층에게 비아냥을 던졌겠지만, 현재의 그는 자신의 죄를 인지하고 신에게 무릎을 꿇는다. "Shame On The Devil"의 아웃트로는 마태복음 6장 12절('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과 누가복음 23장 34절('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에 그 뿌리를 둔다. 그는 더없이 신실한 방법으로 무지에서 비롯된 죄악을 깨뚫어 본 데 더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용서까지 나아간 것이다.

이어 그는 사랑이 좌절되었을 때의 기억을 되짚는다. 카타르에서 만나 깊은 교감을 나눈 여자에게는 애인이 있었고, 그녀는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빈스를 "저스틴, 내 작은 사촌"이라 소개한다("Justin"). 실연의 광경이 스토리텔링을 통해 청자의 눈앞에 그려지며 "여자들은 너무 많이 거짓말을 해"라는 중얼거림은 그의 감정을 고스란히 전한다. "Nothing Matters" 역시 사랑에 대한 생각을 내비치는 트랙으로, "Cause every moment that we share feel like a Polaroid, Sometimes you gotta shake it up, to see what's really there — 우리가 나누는 모든 순간은 폴라로이드 같아, 가끔은 흔들어서 무엇이 찍혔는지 확인해야 하지"라는 각성의 입체적 묘사가 인상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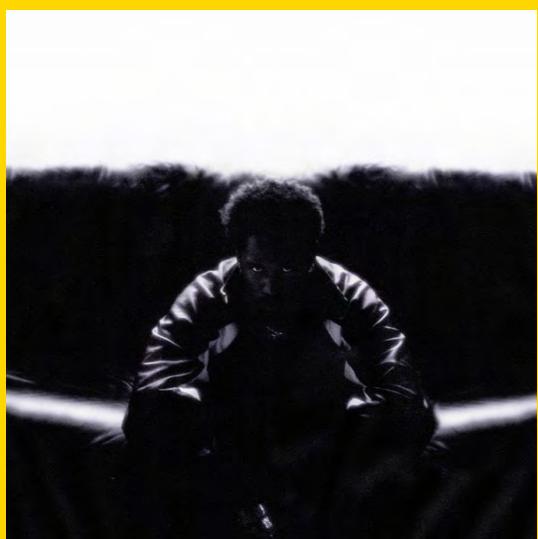
변화한 그의 모습은 "Little Homies"의 후렴구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Life hard but I go harder — 삶이 힘들지만 더 열심히 살아갈 거야"라는 외침과 2Pac의 "The Rose That Grew From Concrete"를 인용한 구절("Streets cold but the road taught us, Concrete where the rose blossom - 거리는 차갑지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었지, 콘크리트 사이에서 장미가 피어나")이 대표적이다. "Freeman"의 비로소 자유인이 되었다는 선언은 지난 몇 년간 그를 괴롭혀 왔던 지리한 고뇌에서 벗어나는 순간을 노래한 하이라이트다.

"Étouffée"에서 스스로 밝혔던 것처럼, 그는 팬들이 활동 초기의 스타일을 원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끗끗이 나아가 음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냈다. 비단 가사적인 요소를 제외하고도 무명 프로듀서 르켄 테일러에게 대부분의 비트를 맡긴다는 과감한 선택은 앨범의 서사와 맞물려 성공했으며 둘 흐르는 듯한 랩으로 많은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담아낼 수 있었다. 마치 그의 성격처럼 묵묵한 방식으로 일종의 한풀이를 해낸 셈이다. 그간 주변에 절은 어둠을 드리우던 장막을 걷어낸 상황, 빈스 스테이플스가 앞으로 행보할 길은 어떤 형상을 하고 있을까. 적어도 그 전처럼 고통과 번민으로 가득한 모습은 아니리라는 예감이 든다.

FULL REVIEW

TIMELESS

KAYTRANADA



TIMELESS / KAYTRANADA

2024. 06. 07 / by denim

- | | |
|---------------------------------------|---|
| 1 Pressure | 12 Please Babe |
| 2 Spit It Out (Feat. Rochelle Jordan) | 13 Stepped On |
| 3 Call U Up (Feat. Lou Phelps) | 14 More Than A Little Bit (Feat. Tinashe) |
| 4 Weird (Feat. Durand Bernarr) | 15 Do 2 Me (Feat. Anderson .Paak & SiR) |
| 5 Dance Dance Dance Dance | 16 Witchy (Feat. Childish Gambino) |
| 6 Feel A Way (Feat. Don Toliver) | 17 Lover/Friend (Feat. Rochelle Jordan) |
| 7 Still (Feat. Charlotte Day Wilson) | 18 Wasted Words (Feat. Thundercat) |
| 8 Video (Feat. Ravyn Lenae) | 19 Snap My Finger (Feat. PinkPantheress) |
| 9 Seemingly | 20 Stuntin (Feat. Channel Tres) |
| 10 Drip Sweat (Feat. Channel Tres) | 21 Out of Luck (Feat. Mariah the Scientist) |
| 11 Hold On (Feat. Dawn Richard) | |

아무리 짧게 보더라도 100년이란 긴 역사를 지난 대중 음악은 해마다 새로 걸린 달력의 수만큼이나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비밥의 다음 단계인 클 재즈, 글램 락의 대향마인 그런지 락, 낙천적인 브릿팝을 거부한 트립 핫 등, 정(正)에 대한 반(反)은 거듭 등장해 왔으며 그 과정 속 음악은 수백 개의 서브 장르라는 가지를 뻗었다. 마치 자연 도태와 닮은 음악의 진화는 본래의 형태를 허물어왔으니, 흐르는 시간을 초월한 과거의 유산이란 존재하는 것일까?

"물론이다"라고, 케이트라나다(Kaytranada)는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답한다. 그뿐인가? 정규 3집을 <TIMELESS>라 작명하며 말 그대로 영원한 가치를 논하기로 한 그는 유산의 정체를 원동력, 즉 관객을 움직이는 힘이라 단정 지었다. 시대, 계급, 인종을 막론하고 인간이라면 음악을 듣고 몸을 들썩이며 감정을 춤으로 승화시킨다는 그의 철학이다. 과연 열 다섯이란 나이에 무려 Earth, Wind & Fire의 "September"를 샘플링하며 작곡에 입문한 댄스 음악 프로듀서가 내릴만한 답변이다.

아이티계 캐나다인인 케이트라나다는 지난 10년간 독자적인 사운드를 구축하는 여정을 보내왔다. 넷튠즈를 벤치마킹하며 다양한 리듬을 고안해온 그의 가벼우면서도 복잡한 드럼 구성과 로파이한 질감은 당시 클럽에서 울려퍼지던 Skrillex 타입 EDM과는 확연히 달랐다. 여기에 팝 아티스트가 아닌 Craig David, Anderson .Paak, Syd, Masego와 같은 알앤비 기반 싱어들을 게스트 보컬로 초청하며 주류와는 아예 다른 길로 가고자 했으니. 데뷔작 <99.9%>로 빼대를 세우고 차기작 <Bubble>로 완성시킨 '케이트라나다식 댄스'는 기성세대 뮤지션들을 위한 하나의 지표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렇게 현대 음악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이 선구자는 이번에는 반대로 본인에게 영감을 준 조상들에게 헌정할 작품을 만들기로 한다. 그의 헌사는 노골적이고 담대하다. 가령 오프닝 "Pressure"는 J Dilla의 <Donuts> 샘플링 기법을 그대로 차용한 루프를 팡파르로 장식한, 서사의 시작을 알리는 성대한 포고이다. 이후 "Weird"에서는 P 베이스와 리드믹 기타를 적극 사용해 횡크의 호황기였던 70년대 초를 그대로 재현. 여기에 George Clinton-ism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혼성 팔세토 코러스와 Durand Bernarr의 끈적이는 보컬을 더해 화룡점정을 찍는다. 이 외에도 "Lover/Friend"에서는 Spice Girls의 "Wannabe" 포스트 코러스를, "Snap My Finger"에서는 Wham!의 "Everything She Wants" 중 일부 가사를 인용한다. 이 역시 세대도 국경도 없는, 케이트라나다의 음악을 향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TIMELESS>가 결출한 회고록인 데는 비단 섬세한 모방뿐이 아닌, 그 레퍼런스들을 엮어낸 방식 자체에 있다. 마치 바이닐을 갈아 끼우며 곡을 틀던 하우스 음악의 시초인 디스코테크를 연상케하듯 해당 작품은 다양한 장르와 템포의 곡들을 자연스레 연결시키며 소개한다. Don Toliver가 참여한 빈티지한 톤의 "Feel A Way"를 바이닐 사운드를 이용해 상대적으로 풍성하고 멜로딕한 소울 트랙 "Still"로 넘기는 방식, 혹은 "More Than A Little Bit"의 풍부한 구성에 가려진 미미한 존재감의 신스를 다음 곡인 "Do 2 Me"의 극초반에 포함하는 믹싱은 모든 수록곡들을 마치 하나의 트랙처럼 느껴지게 한다. 또한, 수많은 참여진이 피처링으로 자리한 가운데 "Dance Dance Dance Dance", "Seemingly", "Stepped On" 같은 인스트루멘탈 피스들은 소위 세트 중 다음 게스트를 기다리며 틀어주는

인터루드의 역할을 수행한다. 비록 일반적인 컨셉 앨범과는 달리 플롯은 부재하나, 나레이션 하나 없이 음악적 요소만으로 이루어낸 클럽 공연의 묘사는 가히 환상적이다.

다만 우수함의 이면에는 아쉬움도 분명 존재한다. 이는 대체적으로 피처링 아티스트 간의 실력적 간극에서 비롯된다. 작품 초입에 위치한 "Call U Up"에서 랩을 담당한 케이트라나다의 친동생이자 힙합 듀오 The Celestics의 반쪽 Lou Phelps가 그 예시이다. 비록 트랙은 반복적인 피아노 리프와 날카로운 보컬 샘플을 사용한 2000년대 하우스라는 컨셉을 지니나, Phelps의 단조로운 플로우와 전부한 가사는 랩의 수준마저 20년 전으로 되돌려버린다. 특히 'beat the pussy up, put it in the cemetery' 같은 라인은 이미 수십 번 들어본 듯한 뻔한 표현으로, 곡의 흐름마저 방해하는 앨범 최악의 구절이라 할 수 있다. "Hold On"에서 Dawn Richard의 무기력한 보컬과 "Out of Luck"에서의 Mariah the Scientist의 영혼 빠진 Rihanna 모창은 안타깝기까지 하다. 거기에 전자의 경우, Channel Tres의 섹시함이 물어나는 땀내나는 뱉어 "Drip"과 전후로 대비되며 그 아쉬움이 더 크게 느껴진다.

이와 반대로 참여 아티스트의 개성이 너무 강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베이시스트이자 다재다능한 뮤지션 Thundercat이 함께한 "Wasted Words"는 소위 '훈수총'이라 불리는 일상의 귀찮은 존재들을 꼬집는 재미난 서사를 지닌다. 실력이 보장된 두 아티스트의 협업인 만큼 곡의 퀄리티는 부정하는 것이 무의미하나, 해당 트랙은 Thundercat의 개인 작업물이라 해도 이견이 없을 만큼 케이트라나다의 존재감이 미비하다. 수록곡 중 가장 대중적인 지지를 받은 Childish Gambino와의 트랙 "Witchy"도 마찬가지다. 색채가 강한 둘의 만남에 필자는 보다 이색적인 작품을 기대했으나, 결과적으로 <"Awaken, My Love!"> 때의 Gambino를 다시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외에는 구경거리가 없다. 피처링진의 캐릭터가 분명한 것을 프로듀서의 책임으로 전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내비칠 수도 있겠으나, 케이트라나다는 이미 Pharrell Williams나 Freddie Gibbs 같은 확실한 세계관의 소유자들과도 성공적인 작업을 마친 이력이 있다. 당장만 해도 Anderson .Paak, SiR, PinkPantheress 등의 아티스트들과 완벽히 융화되는 모습을 보인 바 있으니, 총괄 프로듀서로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순간들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TIMELESS>를 두고 케이트라나다의 최고작이라 평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는 비하자면 여전히 미슐랭급 쉐프이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의 시그니처는 당연한 메뉴가 되었고 조리법은 전작들이란 교과서에 실려 만인에게 들통나버렸다. 진보적 변화가 필요했던 시점에서 오히려 과거로, 그것도 아주 멀리 돌아간 그의 선택은 대중적인 관점에서는 의아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케이트라나다의 시점을 감히 빌려본다면 이 작품은 통과의례와 같았을 것이다. 거의 평생을 음악과 동행하며 이를 업으로까지 삼게 된 이가 그 본질에 대해 의문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 '음악이란 무엇인가' 따위의 추상적인 동상이 아닌, '변화 속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구체적인 질문 말이다. 그렇게 '춤을 추게 만드는 힘'이란 답변에 도달하며 역사 속 대중이 가장 열광한 시대들을 하나의 믹스셋으로 엮어낸 <TIMELESS>. 어쩌면 그는 영원할 것이 명백해 오히려 망설된 가치를 불러내는 초혼가를 작곡해낸 것일지도 모른다.

FULL REVIEW

NO HANDS

Joey Valence & Brae



**NO HANDS /
Joey Valence & Brae**

2024. 06. 07 / by ryuzimoto

- | | |
|----------------------------------|-------------------------------|
| 1 BUSSIT | 7 THE BADDEST |
| 2 PACKAPUNCH (Feat. Danny Brown) | 8 OK |
| 3 NO HANDS (Feat. Z-Trip) | 9 DOUGHBOY (Feat. NLE Choppa) |
| 4 LIKE A PUNK | 10 LIGHTS OUT |
| 5 WHERE U FROM | 11 RIP |
| 6 INTERMISSION 2 | 12 OMNITRIX |



레퍼런스는 여러 분야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창작 포맷 중 하나이다. 뚜렷한 과거의 순간을 현세와 융합하는 레트로와 뉴트로, 존경의 의미를 보여주기 위한 오마주 등이 대표적인 형태이다. 이는 어느 정도 흥행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도이기에 영화, 미술, 패션은 물론 음악계에서도 종종 행해지고 있다. 하지만 절대 왕도는 아니다. 그저 단순하게 따라가는 것은 모방이자 답습일 뿐이며, 작품의 설득력을 상실하고 부정적인 의문점을 자아내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렇기에 몇몇 아티스트들은 오히려 이 같은 시도를 기피한다. 그러나 펜실베니아의 담대한 두 청년 조이 발렌스(Joey Valence)와 브레이(Brae)는 이 양날의 검으로 무장한 두 번째 정규 앨범 <NO HANDS>를 통해 유쾌한 에너지를 힙합 씬 전역에 발산한다.

이번에도 조이 발렌스 & 브레이이는 80년대, Rick Rubin의 주도 하에 성행했던 하드코어 펑크 록과 힙합을 매끄럽게 믹스하는 스타일을 차용했다. 이에 <NO HANDS>는 Beastie Boys와 RUN D.M.C의 향수가 진하게 느껴지는 전작 <PUNK TACTICS>와 유사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확연하게 구분되는 작법론이 존재한다. 바로 이들이 추구하던 기존 사운드 위에 타 장르의 소스까지 적극적으로 차용하여 레이어드 해낸 점이다. 특히 일렉트로닉과 댄스가 두드러지며, 여기에 재즈까지 가미한 조이 발렌스의 셀프 프로듀싱은 두툼한 플룻의 볼륨을 완성시킨다.

이 작법론은 앨범의 인트로인 "BUSSIT"부터 뚜렷하게 배어 나오는데, 트랙 후반부에 저지를립으로 트랜지션되는 비트는 마치 그들이 지금부터 어떠한 프로덕션을 보여줄 건지 선포하는 듯하다. 이후 과하리만치 폭발하는 드럼과 오리엔탈한 루프의 2번 트랙 "PACKAPUNCH"를 지나 "NO HANDS"에서는 순식간에 재지한 분위기로 급변한다. 이 격동적인 3연타는 밀도 있는 패감을 선사해 준다. 이후에도 쉴 틈이 없다. 중반부에 몰아치는 댄스 하우스의 "LIKE A PUNK", Afrika Bambaataa의 "Planet Rock"의 향취가 진하게 느껴지는 일렉트로 힙합의 "THE BADDEST". 이 모든 건 순수하게 재미를 추구하는 조이 발렌스 & 브레이의 고결한 마인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어찌 보면 그들이기에 할 수 있는, 그들만이 투영해 낼 수 있는 테크니이다.

닌텐도 DS, Xbox 등 조금은 독특한 기기들로 촬영한 오락적인 영상들과 뮤직비디오를 틱톡과 쇼츠 등에 업로드하며 마케팅한 그들이기에 담고 있는 메시지도 심상치 않다. 가벼운 인터넷 임과 게임, 애니메이션을 가사에 활용했다는 점이다. 전작들에 비하면 조금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위트있는 시도는 여전하다. 또 서로 상반되는 보이스 피치를 통해 이를 더 극적으로 만드는 데 일조하기도 한다. 서로 번갈아가면서 주고 받는 벌스와 도중도중 그 사이를 채우는 흑, 콜 앤 리스폰스 형태의 추임새는 비록 2명임에도 불구하고 가득 찬 몰입감을 선사해준다. 또한 Danny Brown을 포함한 피처링진도 본작의 전략에 적절히 맞아떨어진다. 전반적으로 스킬풀함과는 거리가 조금 멀지만, 역동적이고 정연한 퍼포먼스는 앨범의 흐름을 강하게 지탱해 나간다.

Kendrick Lamar와 Drake의 디스전을 포함, Diddy 게이트와 The-Dream으로 대표되는 외적인 이슈들까지. 현재 우리는 도파민 가득하면서도 동시에 격정적인 시선으로 힙합 씬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 발매된 조이 발렌스 & 브레이의 <NO HANDS>는 반대로 낙천적인 즐거움을 그려내고 있다. 전혀 다른 종류의 도파민을 콓고있는 것이다. 이는 혼란스러운 정세에 피로감을 느낀 팬들에게 건강한 바이브를 선사하고 있다. 물론 진지한 메시지의 부재가 그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유쾌함을 고집하는 이들의 행보가 젊은 세대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에는 꽤나 충분하다는 것이다.

FULL REVIEW

Why Lawd? NxWorries



Why Lawd? / NxWorries

2024. 06. 14 / by moogsick

- | | |
|---|---|
| 1 ThankU (Feat. Dave Chappelle) | 11 Battlefield |
| 2 86Sentra | 12 HerelAm |
| 3 MoveOn | 13 OutTheWay (Feat. Rae Khalil) |
| 4 KeepHer (Feat. Thundercat) | 14 SheUsed |
| 5 Distractions | 15 MoreOfIt |
| 6 Lookin' | 16 NVR.RMX (Feat. Charlie Wilson) |
| 7 Where I Go (Feat. H.E.R.) | 17 DistantSpace
(Feat. The Last Artful & Dodgr) |
| 8 Daydreaming | 18 WalkOnBy
(Feat. Earl Sweatshirt & Rae Khalil) |
| 9 FromHere
(Feat. October London & Snoop Dogg) | 19 EvnMore |
| 10 FallThru | |

앤더슨 팩(Anderson .Paak)과 놀릿지(Knwxwledge)라는 두 걸출한 아티스트가 모인 그룹 노워리스(Nx-Worries)의 결성 배경을 살펴보려면 시침을 거꾸로 돌려 약 10년 전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무명에 가까웠던 2014년부터 교류를 시작한 이들은 2015년 초 레이블 스톤 스로우의 사운드클라우드 계정에 올라온 싱글 "Suede"를 시작으로 그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오직 사운드클라우드에서만 누적 재생수 400만 회 이상을 기록할 만큼 신선했던 등장에 이은 앤더슨 팩의 <Compton> 참여와 <Malibu> 발매 - 놀릿지의 <To Pimp A Butterfly> 참여와 끝없는 허슬까지, 듀오는 노워리스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개인 커리어에서도 차근차근 그 발판을 쌓아나가고 있었다. 이러한 타임라인을 함께 생각했을 때 데뷔작 <Yes Lawd!>에 쏟아진 호평은 어쩌면 필연에 가까웠을지도 모르겠다. 공통 분모인 알앤비와 힙합, 네오 소울을 바탕으로 다양한 장르를 촘촘히 엮어낸 앨범은 대중과 평단 모두를 매료시켰다.

그리고 그 후로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간 앤더슨 팩은 Bruno Mars와의 Silk Sonic 활동으로 그래미와 빌보드를 동시에 잡았고 놀리지 역시 언더그라운드 래퍼와의 협업으로 고유의 영역을 구축하며 두 멤버의 성공 가도는 끝없이 계속됐다. 물론 호사다마라고 마냥 좋은 일만 일어날 수는 없기 마련. 애처가로 널리 알려졌던 앤더슨 팩의 불륜과 이혼 소식이 알려지며 큰 화제를 낳은 것이다. 이어 발매한 <Why Lawd?>는 그의 개인사를 대주제로 하여 나아간다. 이제는 곁에 없는 그녀를 향한 수많은 감정은 그대로 음악에 녹아 들어 작품을 지배하는 아련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KeepHer"의 그녀를 지키지 못했다는 회한, 사랑과 함께하는 양가적인 감정을 담은 "Where I Go",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SheUsed"까지, 앨범에서 지칭하는 'she' 혹은 'girl'은 곧 앤더슨 팩의 전처인 셈이다. 그의 변명 섞인 후회에 대한 청자의 동의 여부에 상관 없이, 전형적인 알앤비 스타일 보컬과 부드러운 멜로딕 랩을 오가는 퍼포먼스는 본작의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온다.

그룹의 반쪽 놀릿지는 앤더슨 팩의 목소리가 빛을 발할 수 있게끔 묵묵히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는다. 본래 샘플링을 주로 활용해 먼지 쌓인 듯 아련한 무드로 이름을 알렸던 그인 만큼 <Why Lawd?> 또한 샘플을 그려모아 작품을 관통하는 사운드 텍스처를 조성했다. 주 분야인 1970-80년대 모타운, 알앤비, 힙크부터 일본 재즈를 오가는 폭넓은 샘플링 솜씨는 오로지 앤더슨 팩만을 위해 설계된 무대를 만든다. 샘플을 마치 실연(實演)처럼 자유자재로 다루는, 스톤 스로우 레이블의 선배이기도 한 제이 딜라의 적통다운 실력이다. 인터루드 및 인스트루멘탈 트랙을 적극 사용해 곡 간의 연결을 매끄럽게 한 대목에서 그의 성장이 다시금 돋보인다. 그 덕분에 전체적인 호흡을 짧게 잡으면서도 "Distraction" - "Lookin'", "Battlefield" - "HereIAm" 등 이전 트랙의 잔향을 남기며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구성을 갖출 수 있었다.

객원 아티스트 없이 듀오만으로 꾸린 전작과 달리 적재적소에 피쳐링을 활용해 짜임새를 더욱 탄탄히 하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절묘한 보컬 합을 보여준 H.E.R.과 특유의 팔세토 보이스로 매력을 뽐낸 Thundercat, Anderson .Paak이 처한 상황을 암시하는 나레이션으로 트랙을 마무리짓는 Snoop Dogg도 탁월하지만, 개중 가장 발군의 활약을 보여준 이들은 Rae Khalil과 Earl Sweatshirt다. 최근 데프잼 및 앤더슨 팩의 개인 레이블과 계약을 맺기도 한 Rae Khalil은 두 트랙에 걸쳐 소울풀한 목소리로 다채로운 색깔을 칠해냈다. 앤더슨 팩이 특정한 경계 안에서만 운신하며 감정 과잉까지 나아가지 않을 때 들연 나타나는 그녀의 육성은 순간적으로 벽을 허물고 청자를 온갖 정서의 파도로 뒤덮는다. 한편 그녀와 함께 "WalkOnBy"에 참여한 Earl Sweatshirt는 사뭇 상이한 방식으로 트랙의 분위기를 휘어잡는다. 감미로운 코러스가 끝날 무렵 기타 루프가 멈추며 Earl Sweatshirt 특유의 여유로운 래핑이 이어지는 순간은 본작의 하이라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로 다른 색채가 교차하는 순간 탄생하는 아이러니의 미학이다.

타이틀에서 반복되는 'lawd'는 'lord', 즉 주님을 뜻한다. <Yes Lawd!>가 화려한 출세 후 신께 보내는 감사의 감탄사였다면, <Why Lawd?>는 일련의 사건을 겪은 끝에 던지는 물음인 것이다. 때문에 앨범의 마지막 구절에서 되뇌는 "싸울 수도 없고, 그것 없이 살아갈 수도 없어, 정말 혼자인 걸까?"라는 말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그렇다면 본작을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라 할 수 있는가? 혹은 청자가 앤더슨 팩을 비난해야 하는가? 이 모든 질문을 뒤로 하고 확인할 수 있는 하나 분명한 사실은, 그가 자신을 둘러싼 사건과 그 회고를 걸출한 작품으로 빛어내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FULL REVIEW

HARDSTONE PSYCHO

Don Toliver



**HARDSTONE PSYCHO /
Don Toliver**

2024. 06. 14 / by snxo

- | | |
|--|--|
| 1 KRYPTONITE | 9 PURPLE RAIN
(Feat. Future & Metro Boomin) |
| 2 TORE UP | 10 NEW DROP |
| 3 BROTHER STONE (Ft. Kodak Black) | 11 BACKSTREETS (Feat. Teezo Touchdown) |
| 4 ATTITUDE
(Feat. Cash Cobain & Charlie Wilson) | 12 DEEP IN THE WATER |
| 5 BANDIT | 13 INSIDE (Feat. Travis Scott) |
| 6 GLOCK | 14 5 TO 10 |
| 7 ICE AGE (Feat. Travis Scott) | 15 LAST LAUGH |
| 8 4X4 | 16 HARDSTONE NATIONAL ANTHEM |



국내외를 막론하고 오늘날 아티스트의 성공 여부에 있어 제일 중요한 요소는 그들만의 컨셉과 이로부터 만들어지는 타겟층이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는 때론 아티스트의 예술을 논할 때 그들의 음악보다도 더 중요시 여겨지곤 한다. 사운드클라우드 래퍼에서 사타니즘 뱠파이어로 변신해 힙합계를 뒤집은 Playboi Carti, 누구보다 완벽한 2000년대의 패션과 사운드를 선보이며 Y2K 열풍의 대표 주자가 된 PinkPantheress, 그리고 '겪어보지 않은 시대를 향유하는 노스텔지어'라는 다소 단순한 키워드 하나로 케이팝의 정상에 오른 뉴진스까지. 어느덧 현재 세대의 아이콘이 된 이 세 아티스트들의 공통점 또한 특정 컨셉과 아웃핏을 기반으로 한 독보적인 캐릭터성과 오리지널리티가 존재한다는 점에 있다. 오리지널이라는 타이틀은 해당 컨셉을 누가 제일 먼저 시도했느냐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 컨셉을 누가 제일 먼저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마치 Playboi Carti가 뱠파이어 기믹을 제일 먼저 사용한 래퍼가 아니지만 어느새 뱠파이어는 곧 Carti라는 공식이 세워진 것처럼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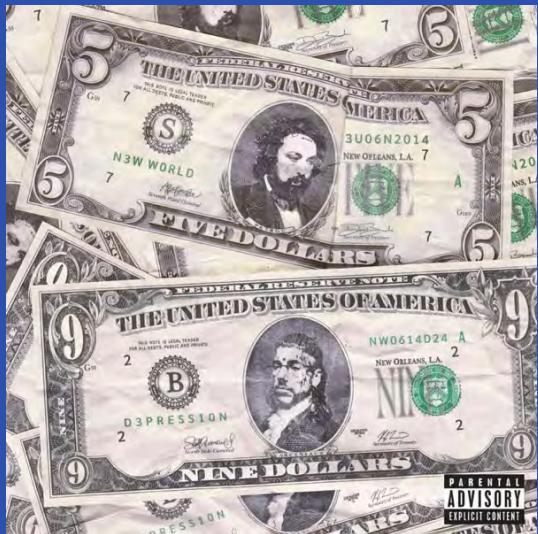
2018년 발매된 Travis Scott의 정규 3집 <ASTROWORLD>의 "CAN'T SAY" 속 센세이셔널한 벌스로 대중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킨 Don Toliver. 이후 수많은 피쳐링과 개인 작업물로 자신만의 음악을 선보이며 큰 사랑을 받은 그이지만 그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바로 자신만의 캐릭터성이다. 지금까지 돈 틀리버의 이름에 따라붙는 수식어는 그의 음색과 타 아티스트들과의 관계에 기반한 키워드였을 뿐, 한 명의 아티스트로서 그에게 주어진 수식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게 준수한 세장의 정규 앨범을 선보이고도 부족한 캐릭터와 화제성 탓에 힙합 씬에 그리 큰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던 돈 틀리버. 그는 결국 정규 3집 <Love Sick>이 발매된 지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인 2024년 6월, 거대한 들풍을 일으키며 폭주족이 되어 돌아왔다.

돈 틀리버의 네 번째 정규 앨범 <HARDSTONE PSYCHO>는 수많은 키워드로 이루어져 있다. 단단한 암석을 뜻하는 Hardstone과 이와 상반되는 날카로운 이미지의 Psycho, 앨범 커버 속 할리 데이비슨 바이크와 발렌시아가. 오늘날 흔히 '쇠맛'이라고 불리는 이미지들과 키워드들이 모여 완성시킨 돈 틀리버의 새로운 캐릭터는 그가 앞으로 보여줄 음악적인 방향성에 대한 단서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가 외적인 이미지로 보여준 큰 변화는 그의 음악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탁월한 샘플 초이스와 현란한 일렉과 베이스 리프를 선보이는 "KRYPTONITE"와 "TORE UP", 전혀 예상치 못했던 피쳐링으로 Kodak Black을 앞세워 최고의 듀엣을 보여주는 "BROTHER STONE", 그리고 선공개로 앨범에 대한 엄청난 기대를 모았던 "ATTITUDE"까지, 강렬한 사운드의 뱅어들을 앨범의 도입에 줄 세워 배치하며 단순한 싱잉 랩 장인으로서의 이미지를 탈피함은 물론, 앨범의 컨셉과 완벽하게 들어맞는 뛰어난 프로듀싱을 보여준다. 그렇다고 그가 기존의 스타일을 전부 내려놓은 것은 아니다. Travis Scott과 함께한 두 트랙 "ICE AGE"와 "INSIDE"를 통해 이미 수 차례 증명된 둘의 탁월한 듀엣을 다시 선보이기도 하며, 앨범 곳곳에 "GLOCK"과 "NEW DROP" 같은 통통 튀는 가벼운 사운드의 팝 랩을 보여주며 자신의 최대 장점인 넓은 스펙트럼을 충분히 펼쳐낸다.

하지만 그렇다고 본작이 완벽한 앨범이라는 뜻은 아니다. 뱅어들이 줄 세워진 도입부가 본작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말은 곧 가장 큰 단점은 앨범이 끝을 향해 갈수록 힘을 잃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특히 "5 TO 10"이나 "HARDSTONE NATIONAL ANTHEM"과 같이 앨범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네 번째 파트에 배치되어 있는 트랙들은 여러 방면에서 앨범의 서사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며 52분이라는 긴 구성을 점점 지루하게 만든다. 따라서 만일 본 프로젝트가 몇 트랙들을 제외하여 보다 짧은 길이로 발매되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높은 평가를 받았을 것이라는 안타까운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ARDSTONE PSYCHO>가 돈 틀리버의 최고작이라는 평가를 부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십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길고 닦아온 자신만의 개성과 새롭게 탄생한 하드스톤 싸이코라는 캐릭터, 적재적소에 사용한 피쳐링과 암석을 다루듯 정교한 프로듀싱. 이 모든 요소들은 돈 틀리버의 훗날을 그릴 때 Travis Scott을 연상시키게 만든다. 앞으로 더욱 뜨겁게 가열될 그의 폭주 정신이 얼마나 거대한 무리의 폭주족들을 이끌게 될지 기대가 되는 바이다.

FULL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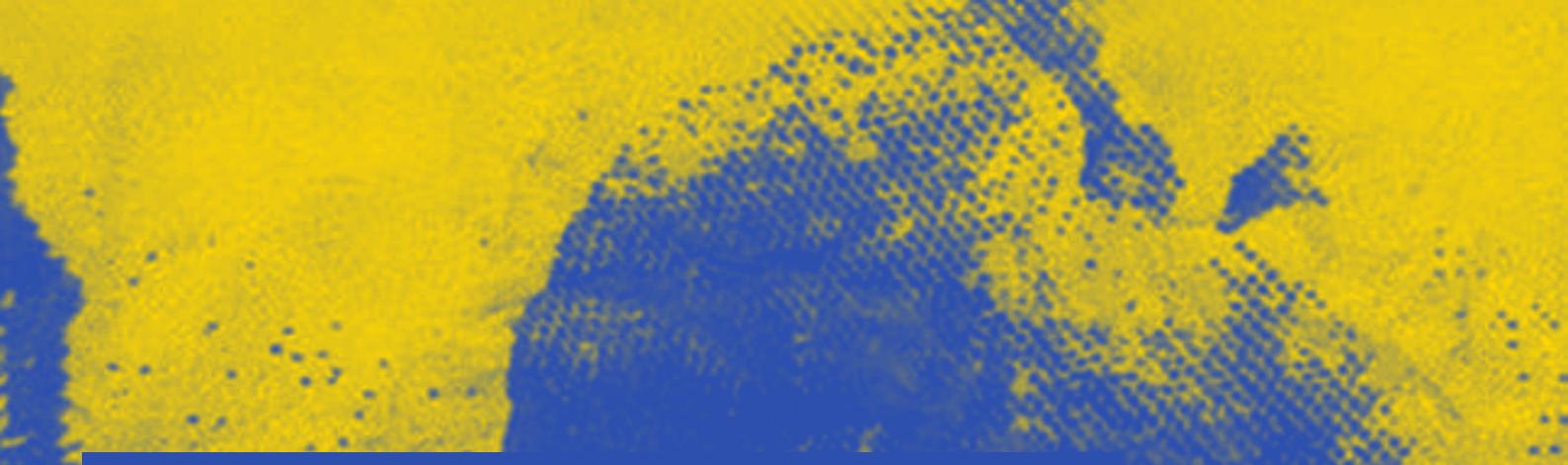
New World Depression \$uicideboy\$



New World Depression /
\$uicideboy\$

2024. 06. 14 / by 자카

- 1 Lone Wolf Hysteria
- 2 Mental Clarity Is a Luxury I Can't Afford
- 3 The Thin Grey Line
- 4 Thorns
- 5 Misery in Waking Hours
- 6 Burgundy
- 7 Transgressions
- 8 Are You Going to See the Rose in the Vase, or the Dust on the Table?
- 9 All of My Problems Always Involve Me
- 10 The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for \$9.99 a Month
- 11 Drag 'Em to the River (Totalitarian Remix)
- 12 Us Vs. Them
- 13 Kill Yourself V



현재 언더그라운드 힙합씬을 대표하는 아티스트 중 하나인 수어사이드보이즈(\$uicideboy\$)는 술한 래퍼들 사이에서 독특한 무언가를 자랑하였다. 그들은 타인들처럼 정신적 고통과 약물 남용 등의 주제를 다뤘으나, 동시에 세상의 악마들과 맞서 싸우며 인터넷과 약물에 중독된 세대의 심리를 묘사하기도 했다. Crack Magazine의 말을 인용해 표현하자면, 2010년대 초반 SoundCloud의 원초적 혼란 속에서 등장한 수어사이드보이즈는 불쾌할 정도로 음산한 분위기의 Lil Ugly Mane과 자신의 내적 고통을 진솔히 드러내는 XXXTENTACION의 중간 어디쯤에 위치해 있다. 따뜻함이란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냉소적이고 우울하다. 이 차가운 두 남자는 화려함과 과잉을 동시에 머금은 빠른 래핑으로 자신들의 고통을 고백한다.

정규 3집 <Sing Me a Lullaby, My Sweet Temptation> 이후 2년의 세월이 흐르고 발매된 새 정규 단위 작업물 <New World Depression>는 이전 작품들의 문법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본작에서도 수어사이드보이즈는 역시나 약물 중독, 우울증, 자살 충동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어두운 주제를 다룬다. 그러나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이 하나 있다면, 바로 치유와 회복의 과정이 돋보인다는 것이다. 멤버 Ruby와 \$crim이 몇 년 전 금주를 시작한 아래로 그룹의 사운드는 굉장히 밝아지기 시작했다. 재즈 피아노와 현악기 등 보다 부드럽고 정교한 요소들이 가미되었고, 여전히 짙은 어둠이 조금은 내지되어 있을지언정 가사 역시 과거의 고통을 반추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신들을 고독한 늑대에 비유해 정신적인 혼란과 분노를 표현한 "Lone Wolf Hysteria"와 현대 사회에서 정신적 건강은 사치라고 말하는 "Mental Clarity Is a Luxury I Can't Afford"로써 말 그대로 수어사이드보이즈다운 강렬한 시작을 선포한 뒤, 그룹은 본격적으로 자기반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 사회적 규범과 개인적 신념 사이의 갈등을 담은 "The Thin Grey Line", 자신의 고통을 가시에 비유하여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Thorns", 범죄에 대한 죄책감을 노래한 "Transgressions", 자기반성과 자기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All of My Problems Always Involve Me". 계속해서 약물, 우울, 자살을 노래하던 수어사이드보이즈는 본작에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 명확하고 지성이 담긴 가사를 내뱉기 시작한 것이다.

2014년의 첫 EP <Kill Yourself Part I: The \$uicide Saga>를 시작으로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약 60장에 이르는 앨범들을 발매하며 쉼 없이 달려온 수어사이드보이즈는 자신들의 커리어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하였다. 전작의 여정을 잇는 <New World Depression>은 그룹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담아낸 결과물로 보인다. 더욱 더 부드러워진 사운드, 재즈와 남부 힙합의 영향, 또 마침내 희망을 찾기 시작한 가사말들까지. 수어사이드보이즈는 자신들의 어둠에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이며 공존하는 방법을 드디어 알아차린 것만 같다. 본작은 흡잡을 구석이 딱히 존재하지 않는, 깔끔하고 정교한 작품이다. 당신이 이 사내들의 오랜 팬이건, 아니면 이들을 처음 접하였던 — 전혀 상관없다! 그저 마음 놓고, 이들의 질주에 몸을 맡겨라.

EDITOR'S PICK

FEATURED

CLASSIC REVIEW

FULL REVIEW

INTRODUCING

WORLD HAUS OF MATTERS
W/HOM

CLASSIC REVIEW

The Sun Rises in the East Jeru The Damaja



**The Sun Rises in the East /
Jeru The Damaja**

1994. 05. 24 / by 온악

- | | |
|---------------------------------------|--|
| 1 Intro (Life) | 8 Perverted Monks in Tha House (Theme) |
| 2 D. Original | 9 Ain't the Devil Happy |
| 3 Brooklyn Took It | 10 My Mind Spray |
| 4 Perverted Monks in Tha House (Skit) | 11 Come Clean |
| 5 Mental Stamina (Feat. Afu-Ra) | 12 Jungle Music |
| 6 Da Bichez | 13 Statik |
| 7 You Can't Stop the Prophet | |

"디제이 프리미어(DJ Premier, 이하 프리모)는 힙합 최고의 프로듀서다." 이 명제를 부정하기 위해 동원하지 않으니만 못한 반박거리를 얼마나 찾아내야 할까? 힙합의 별이 된 전설들의 곁에는 언제나 그의 특출난 솜씨가 함께 했다. <Hard to Earn>과 <Moment Of Truth>, 그와 Guru의 앙상블은 완연한 힙합의 정수를 상징했다. 그는 한때 죽은 자 중에 최고와 함께 했고, 산 자 중에 최고와 함께 하기도 했다. 세기말 흑인 음악의 집단지성에게도 그의 독창적인 장인정신은 대체적 추구 미를 위한 필요조건이었다. 그는 Kanye의 스타였고, Royce의 구원자였으며, Joey와 Griselda의 멘토였다. 수많은 이름들이 기록되고 더 많은 이름들이 스러지는 가운데, 그의 유산만큼은 힙합 황금기의 동의어가 되어 새 세대의 아네모이아를 자극하고 있다. 그 역시 별들의 일원인 것이다.

그런 그의 커리어에 있어 <The Sun Rises in the East>는 상당히 특이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의 대표작이라 하기엔 비교적 마이너하지만, 그의 프로덕션이 이룩한 업적을 논할 때 빠지길 거부하는 듯한 그의 특별한 위상은 확연하다. "I'm the Man"의 조명 찬탈자가 프리모의 총괄 프로듀싱을 받은 앨범을 데뷔작으로 낼 줄 그 누가 감히 예상했겠는가? 그가 Gang Starr Foundation의 일원으로서 그동안 보인 충성 때문이었을까? 혹은 일인의 MC로서 심상치 않은 그의 실력 때문이었을까? 어쨌든 제루 더 다마자(Jeru The Damaja)는 이 사실상의 합작 중 양익의 나머지가 되기에 결코 모나지 않은 인물이었다.

같은 해의 <Illmatic>이나 <Hard to Earn>에 비교했을 때, <The Sun Rises in the East>는 한껏 이질적이다. 휴스턴 출신임에도 동부 힙합의 대표적인 존재가 될 만큼이나 확고한 스타일을 지닌 디제이 프리미어 특유의 샘플링 감각과 커팅, 그리고 압도적인 드럼만은 그 존재감을 여실히 떨치고 있다. 그러나 위 조건들로 창출해내는 톤이 이전작들과 매우 상이하다는 점에서, 제루의 데뷔작은 프리모의 가장 이질적인 작품이 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앨범을 상징하는 싱글 "Come Clean"의 비트에 주목하라. 필자는 90년대의 힙합에서 이만큼이나 고이한 비트를 더 접한 경험이 없다. Shelly Manne의 "Infinity" 샘플을 그대로 가공해 비트로 만든 프리모의 센스는 그의 주 장기인 이스트코스트 블랙보다도 익스페리멘탈 힙합의 초기형에 가깝다. 반면 비트 전반에 깔린 재즈 색소폰 싱글이 인상적인 "Da Bitchez"는 그의 폭넓은 샘플 활용 능력을 대표한다. 동시대의 또 다른 천재인 RZA와 Buckwild 등과 비교해도, 그들에 비해 동부의 원류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았던 프리모의 사운드는 본작에서 확실하게 급변했다. 오리엔탈, 로파이, 익스페리멘탈. 프리모가 결코 한 가지 장기로 승부하는 프로듀서가 아님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렇다고 해서 <The Sun Rises in the East>를 프리모 실험성의 집약으로만 치부하기엔 곤란하다. 본작의 핵심 정체성은 오히려 제루 더 다마자에게서 출처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Guru에 비해 비교적 투박하나 더 그루비한 플로우를 구사하는 그의 보컬은 하드코어 힙합에 걸맞는 무게감을 갖춘다. "I'm the Man"에서 그러했듯 자신을 일컬어 'Dirty rotten scoundrel'이라 소개하는 제루의 랩은 위협적인 피아노 건반의 오프닝인 "D. Original"에서, 어휘력은 그보다 앞선 "Intro / Life"에서 이미 진가를 보인다. 그 어떤 래퍼가 앨범의 인트로에서부터 음양이론과 우주의 균형 등을 운운한단 말인가? 길거리 지성의 극점에 서있는 그의 라임 스펙트럼은 Wu-Tang의 GZA나 후대의 El-P와 비견될 만하다. 뉴욕 빈민가의 우중충한 공기와 고대 동양의 문화, SF 코믹스와 종교적 모티브를 혼합한 제루의 랩 게임은 명작사가들로 넘쳐나는 당시의 뉴욕에서도 그 누구와 비교를 불허했다. 그 중 백미는 단연 "You Can't Stop The Prophet"이다. 예언자(The Prophet)으로 분하여 반지성주의의 분파들과 치열한 추상적 사투를 벌이는 제루의 스토리텔링은 스트릿 래퍼들의 주안점이었던 '생생함'과 완전한 정반대의 결과물이었다.

육중한 비트와 육중한 플로우, 그 마디 사이의 스크래치에 가미되는 오리엔탈 소스와 어색하게 가공된 보이스 스크래치, 두 수재의 음악적 특기는 가장 독특한 하드코어 블랙 음반을 탄생시켰다. 텐테이블리즘의 음향적 미학, 현지화된 동양 문화의 지적인 활용, 청자를 주목케 하는 MC의 역량과 그를 뒷받침하는 프로덕션의 위력까지, <The Sun Rises in the East>는 힙합 최고의 해였던 1994년을 수놓는 또 하나의 명작으로 청송받기에 부족함이 없다. 폭력성의 틀에 박히기 쉬운 장르인 하드코어 힙합에서 제루는 그만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거리의 삶을 묘사, MC로서의 공격성을 표출함으로서 획일화의 장벽을 회피했다. 심지어 그의 특이한 딜리버리는 어쩌면 앱스트랙 힙합의 청사진까지도 미리 제시했을 지 모른다! 본작이 발매 3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적인 해, 매니아들은 그들이 애호하는 힙합 원소의 본초로 회귀해야 할 것이다. To the Dirty rotten scoundrel.

CLASSIC REVIEW

The Powers That B Death Grips



The Powers That B / Death Grips

2015. 03. 31 / by 예리



Disc 1
Niggas On The Moon
2014.06.08



Disc 2
Jenny Death
2015.03.19

Disc 1 **Niggas On The Moon**

- 1 Up My Sleeves
- 2 Billy Not Really
- 3 Black Quarterback
- 4 Say Hey Kid
- 5 Have a Sad Cum
- 6 Fuck Me Out
- 7 Voila
- 8 Big Dipper

Disc 2 **Jenny Death**

- 1 I Break Mirrors With My Face in the United States
- 2 Inanimate Sensation
- 3 Turned Off
- 4 Why a Bitch Gotta Lie
- 5 Pss Pss
- 6 The Powers That B
- 7 Beyond Alive
- 8 Centuries of Damn
- 9 On GP
- 10 Death Grips 2.0



<Vespertine>은 의심할 수 없는 비요크(Björk) 최고의 순간들 중 하나다. 백조가 영위한 등지는 일몰의 시간에도 자그마한 백야 한 폭을 그려냈고, 이는 악상과 선율로 빛어낸 창세기의 지휘자를 연상케 했다. <Debut>으로부터 점차 질게 물들어가며 극의에 달한 깊이의 한계에 다다른 순간이다. 차마 다음 걸음을 내딛으면 절벽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까 싶을 즈음, <Medúlla>가 탄생했다. 오케스트라의 악기들을 부숴버리고 음성의 파편들을 모아 동물들의 울부짖음으로 완성한 광시곡의 연속. <Vespertine>의 Björk가 꿈결에 잠긴 채 무한히 도는 팽이를 지켜보게 만들었다면, <Medúlla>의 비요크는 한발로 딛어 우뚝 선 팽이가 천천히 떠오르는 모습을 전시해냈다.

경외스러운 기악곡 편성력은 의심할 수 없이 Björk의 심장이다. 이에 반하는 <Medúlla>는 그녀가 수많은 성대의 울림만을 재료로 고집하며 뒤섞어낸 새로운 레시피다. 다시 말해 그간의 집약과 집약의 완성으로 조여진 결속력이 폭발하기 직전, 비요크가 가늠할 수 없는 깊이의 바다 위 푸르른 물살로 몸을 던진 결과물이다. 거리감은 창공의 시작부터 심해의 끝까지. 에베레스트 산부터 마리아나 해구까지 약 20km에 달하는 자유낙하를 가정하게 된다. 결점 없던 비요크의 디스코그래피에 날아든 그 이탈과 재구성의 농도는 감히 <Pet Sounds>의 영향력, <Yeezus>의 가시성, <Kid A>의 전위성, <Blonde>의 변신과 비견해도 모자라지 않다.

비단 비요크만큼 위대한 아티스트가 아니어도 누구에게나 자유낙하의 순간이 찾아온다. 이 낙하란 이카로스의 추락이 아닌 낮을 내리고 뛰어드는 번지 점프를 일컫는다. 목적이 제각기일뿐, 저마다의 함성을 지르며 낙하의 스릴을 즐기는 순간, 리스너란 명칭을 달고 처음 태동하던 순간부터 삶의 단짝으로 음악을 끼얹은 감동의 찰나들이 모이기까지. 비요크의 과도기로 화두를 던지는 데스 그립스(Death Grips)의 음반 리뷰에 담은 당신은 공기저항으로 인해 가속의 정체구간에 놓인 어느 표류인임이 분명하다.

흐려진 논점을 다잡기 위해 요점을 정리하자면, 세 문단 길이의 중력과 낙폭 묘사는 이 리뷰를 관통하는 관점의 슬로건이자 자의적으로 제시하는 앨범의 감상법이다. 디스크 1 < Niggas On The Moon >과 디스크 2 < Jenny Death >의 연결로 완성되는 본작 < The Powers That Be >. 더블 앨범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낙차의 대비감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초반 비요크의 일대기로 포문을 연 문단들은 그녀의 기여로 데스 그립스의 가장 컨셉츄얼한 앨범인 < Niggas On The Moon >을 탄생시켰기 때문임도 있겠지만, Death Grips의 음악과는 장르 및 음악적 특성의 괴리감이 서로 등을 맞댈지언정 그 본능적 감각을 일깨우는 점화력의 힘이 서로 와닿아 닮아있기 때문이다. 동떨어진 비유 대신 당장 "Beware"와 "It's Oh So Quiet"을 탄생시킨 목소리의 주인들을 살펴보자. 송배하기에 마땅한 짐승을 자처하며 아우라를 고조시키는 라이드(Ride)와 익살스러운 포효로 청중을 휘어잡는 비요크. 영적인 예술의 존재가 창조해낸 피조물과 같은 들의 자태를 감상하며, 본격적으로 포장을 뜯어 삼켜볼 차례다.

Disc 1

Niggas On The Moon

2014.06.08

- 1 Up My Sleeves
- 2 Billy Not Really
- 3 Black Quarterback
- 4 Say Hey Kid
- 5 Have a Sad Cum
- 6 Fuck Me Out
- 7 Voila
- 8 Big Dipper



the powers that b
disc 1

3인조 그룹 데스 그립스를 관통해온 팀의 상징, 그 아이콘을 MC 라이드로 보는 견해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세부 의견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의 독보적인 랩 퍼포먼스가 팀의 중추 역할을 하기 때문이겠다. 하지만 매니아들을 양산하기에 최적화된 라이드의 캐릭터만이 곧 데스 그립스의 정체성이라 보기 어렵다. 그들과 확연한 대척점에서 서 있는 밴드 Kero Kero Bonito의 "I've Seen Footage" 커버 영상을 시청해보자. 늘 헐벗은 채로 과격한 무대를 선보이는 라이드가 아닌 얌전한 Sarah Bonito가 마이크를 잡고 휘적거리지만, 보컬의 차이로 팝펑크스러움이 물씬 풍기는 와중에 명백히 잭 힐(Zach Hill)의 향을 풍기는 멜로디와 함께 열광하는 관람객들의 모습은 여전히 라이드를 대하는 듯 열정적이다.

라이드의 랩은 폭발 대비 상태의 불붙은 심지의 스파크와도 같고, 그런 라이드가 날뛸 수 있는 판국을 위해 풍부한 기악적 소스를 제공해온 잭 힐과 앤디 모린(Andy Morin)의 조력이 수많은 레코드들 각각의 차별성과 다채로움을 갖추게 하며, 데스 그립스의 디스코그래피는 이렇게 정립되어 왔다. 그런 그들의 음악적 성향은 흔히 익스페리멘탈·인더스트리얼 계열로 요약되곤 하지만 그 세부 갈래를 파고든다면 또 다시 모래시계를 뒤집어야 한다. 당장 데스 그립스의 앨범들을 비교하려 해도 다소 모호한 표현들이 뭉뚱그려질 뿐이다. 비교적 깔끔하고 선명하게 닦아낸 <The Money Store>와 <Bottomless Pit>, 글리치적 요소를 다수 수용한 <Government Plates>, 다양한 벙어 트랙들을 다수 포진시킨 <Exmilitary>. 구체적 장르의 표현이 아닌 이상 이들을 함부로 규정하기란 어렵다.

하지만 이 둘레에서 <Niggas On The Moon>을 살펴본다면, 앨범 트랙들 모두를 가두는 액자가 존재한다. 이미 지겨울 만큼 등장한 그 이름 비요크다. "Big Dipper"의 후반부 등을 제외하면 비요크의 음성들은 <Niggas On The Moon>의 앨범 전반적으로 갈갈이 조각이 나 반복되거나 왜곡된다. 본작의 홍보 포스트를 올리며 그녀가 자신을 '발견된 도구'라 묘사하며 한껏 격하시킬만큼, 기민한 감각을 요구한 파편들은 음악계에서 가히 독자적인 아이슬란드 억양마저 드러나지 않게 정체를 숨기고 위장시킨다. 데스 그립스의 의도가 어떠했는지는 알지 못해도, 이 본능적인 문법을 구사하는 비요크 음성의 전권을 얻어낸 그들로서는 최선의 방



법들 중 하나일지도 모르겠다. 저휘도에 노이즈가 덧씌워진 공통점을 공유하지만 명백히 어그러진 보색 관계처럼, 어색한 맞물림이 발생하지 않게 철저히 데스 그립스의 스타일대로 주조해낸 결과다.

비요크의 음성은 도구의 위치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Up My Sleeves", "Billy Not Really", "Have a Sad Cum BB", "Fuck Me Out" 등은 제각기 다른 예시이다. 곡의 하이라이트에서 불안정한 부조화 조성을 의도하기도, 캐치한 멜로디 루프의 감초 역할을 맡기도, 우울한 울부짖음으로 강렬히 산화하기도, 혹은 퍼커션에 가깝게 압축되기도 한다. 매끈하지 않은 목소리가 의도적인 거슬림을 유발하며 묘사하는 뒤틀림의 연속, 악곡 요소들의 심한 부조화를 방지하고자 라이드가 목소리를 죽이는 순간들이 존재함을 생각하면 심히 독특한 방식이다.

어떠한 강렬함의 지표로서는 차선책들이 존재하지만, < Niggas On The Moon >은 분명 < Year Of The Snitch >에 못지 않게 얹히고 설친 구성으로 조직된 앨범이다. 약 30분 가량을 거쳐 "Big Dipper"의 후반부에 이르고, 비요크의 마지막 남은 힘을 쏟아낸 1분 간의 아방가르드 하모니를 감상한 뒤라면, 정신을 일깨우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이윽고 그들 본연의 모습을 드러낸 2막이 시작된다.



Disc 2

Jenny Death

2015.03.19

- 1 I Break Mirrors With My Face in the United States
- 2 Inanimate Sensation
- 3 Turned Off
- 4 Why a Bitch Gotta Lie
- 5 Pss Pss
- 6 The Powers That B
- 7 Beyond Alive
- 8 Centuries of Damn
- 9 On GP
- 10 Death Grips 2.0

소규모 단위의 소포모어는 좀 더 모호한 개념의 정의를 요구한다. 앞선 <Niggas On The Moon>의 경우는 중추를 맡은 비요크의 기여는 물론, Gil-Scott Heron의 "Whitey On The Moon"에 가지는 앨범 제목의 대립성 등 다소 뚜렷한 논쟁거리를 내포한다. 하지만 <Jenny Death>는 아니다. 대체 'Jenny'는 누구인가. 여러 추측들에 따르면 <Niggas On The Moon>의 앨범 커버 촬영지로 추정되는 장소 주변에 위치한 Baby Jenny의 무덤 등이 언급되기도 하고, <Jenny Death>의 커버를 장식한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대로 클럽의 Marilyn Monroe 유리 벽화와 함께 그녀의 미들네임 Jeane으로부터 짐작하기도 한다. 이 중 정답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확실하게도 <Niggas On The Moon>에서는 명백히 드러난 뮤즈 비요크가 존재했다면 <Jenny Death>는 다소 우회적이다. 임의적인 신원미상의 여성을 표현하는 어휘 Jane Doe와도 연결되는 지점이니, 의도한 바일지도 모른다.

이 시점에서 아주 먼 초두에 언급한 자유낙하를 다시 끌어온다면, 이러한 불명확스러움에 힘입은 <Jenny Death>는 명백히 <Niggas On The Moon>으로부터 낙하한 결과물로 칭할 수 있다. 궤를 달리 하는 두 오프너 트랙 "Up My Sleeves"와 "I Break Mirrors With My Face In The United States"의 성향을 비교하자. "You Might Think He Loves You..."를 연상시키며 그저 곡의 제목을 무자비하게 반복하는 "I Break Mirrors With My Face In The United States"는 Jenny의 정체를 Marylin Monroe 등에 대조하여 들여다본 노력을 잠시나마 무력하게 만든다.

오프너 트랙이 그랬듯 <Jenny Death>는 하드코어 랩 악에 이어 포스트 메탈적인 성향을 다분히 내포한다. 어찌 보면 데스 그립스에게 쉽게 기대하고 또한 다수가 원하는 스테레오타입과도 같다. 하지만 그 뻔하고 직관적인 맛을, 아주 짙은 고밀도의 농축으로 빚어낸 트랙들의 연속으로 배치한다면 오히려 신선한 경지에 도달하는 결과도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다. 클리셰와 클래식의 한 곳 차이인 것이다. <Jenny Death>는 앨범의 후반부로 달리기까지 "Inanimate Sensation", "Turned Off", "The Pow-



ers That B", "Centuries of Damn" 등의 트랙들을 점철하며 마음껏 머리를 흔들거나 폭력성을 일깨우는 그 폭발력을 아낌없이 뽑아낸다. 그렇게 끝없는 에너지의 질주로 발밑조차 보이지 않는 마라톤을 달리다 보면 심상치 않은 도입부의 매탈게이즈 아우라를 뽐내는 "On GP"에 도달한다. 웅장하고도 어둡게 끌어오르는 빌드업에 의해 불현듯 찾아오는 센티멘탈에 잠긴 뒤, 염세와 허무 그리고 자기파괴적 성향의 메시지를 적나라하게 녹여낸 가사에 젖어들어 온몸이 피범벅으로 물들기까지.

"On GP"를 해부하면 비로소 Marilyn Monroe의 카데바를 관람하는 기의에 휩싸인다. 그녀가 이룬 영예와 업적, 휘말린 사건사고, 안타까운 최후에 이르기까지 몇 편의 영화로 만들어져도 손색 없는 일대기. 라이드의 가사는 앨범 커버 속 어느덧 기록이 된 Marylin Monroe의 메시지와 맞물려 상처의 쓰라림과 굴복의 아픔을 내재한다. 짧지 않은 길이의 곡에 압도당한 뒤엔 해체와 작별을 암시하는 듯한 마지막 곡 "Death Grips 2.0"이 시작되고, 잭 힐의 기교만이 남은 그 자리에 라이드는 존재하지 않는다. 81분 가량의 길이에 달하는 낙하를 마무리하는 순간이다.

모든 낙하는 필연적인 고저 차이를 요구하지만 결코 그 높낮이가 우월과 열등을 판가름하진 않는다. 오히려 진리란 사회에 통용되는 메시지와 역방향 일지도 모른다. 높은 건물, 높은 지위, 높은 콧대. 견고하지 않은 부유란 꺾이고 부서지기 마련이며, 둘떠 있는 감정은 언제나 이면에 불안정을 머금고 수명을 다하면 다시 내려오기 마련이다. 데스 그립스를 향한 이 자유낙하의 비유는 첫 문단에서 짚은 비요크와 이어진다. <Vespertine>은 <Jenny Death>와, <Medúlla>는 <Niggas On The Moon>과. 방향은 서로 반대지만 각자의 스토리 라인이 완성되고, 때문에 두 앨범을 합친 결과물이 'The Powers That B'로 요약되는 이유 역시 같은 흐름이지 않을까.

격동의 시기를 룰러코스터에 비유하기란 흔해 빠진 템플릿의 일종이지만, 제 아무리 길어야 수 분 가량에 달하는 놀이동산의 질주를 한 세기만큼 늘여 은유로 펼쳐놓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줄곧 간과하는 사실이다. 데스 그립스가 몸소 요약한 그들의 과도기와 혼란 그리고 예술적 기법과 굉음으로 덧씌운 예술적 이면의 부조화들. 으레 그렇듯 예술은 언제나 껍질을 벗겨야 이해의 영역으로 파고들 수 있고, 이 앨범 전체를 단순한 도파민의 충전재로 취급하기란 곧 무책임하고 게으른 수동적 청취자의 증명서를 발급 받는 꼴이 되겠다.

그간 단순한 청각적 쾌감 혹은 스릴 넘치는ダイ빙의 경험을 위해 즐겨온 데스 그립스 청취일지를 감안할 때, 복잡한 자의적 해석이 곁들여진 지금 본작만큼 다양한 청취자들의 해석이 궁금할 수가 없다. 그를 청취해온 청자들이 데스 그립스의 음악을 향해 어떤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지는 알 길이 없으나, 갑작스런 내적 갈등은 실험과 전위를 모토로 내건 추상화의 목적을 파헤치기로 나선 자들의 숙명일지도 모르겠다.

EDITOR'S PICK

FEATURED

CLASSIC REVIEW

FULL REVIEW

INTRODUCING

WORLD HAUS OF MATTERS
W/HOM

FEATURED

공ZA의 재마카세 Intro + Vol. 1

by 공ZA

다양한 장르 중 힙합과 알앤비/소울과 같은 특인 음악이 본인의 취향과 가깝다면, 아마 당신은 재즈라는 입구에도 수도 없이 도달했을 것이다. 하지만 재즈는 이전과 달리 씬에서 부흥하는 장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작품으로 입문해야 하는지, 어떤 감상 포인트가 있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도 걱정은 지양하라. 셰프가 정성을 다해 완성한 코스처럼, 재즈 입문자들을 위해 어떠한 특징을 알아야 재즈를 더욱 즐겁게 감상할 수 있는지 알게 해줄 예정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식탁 위에 앉아 있으면 코스의 순서대로 요리가 나오듯, 공ZA의 재즈 오마카세가 여러분 앞에 놓여질 것이니. 만약 입맛에 맞는다면 이에 걸맞는 작품을 찾아 떠날 준비를 마친 것이다.

재즈의 구성적 측면

재즈는 작은 오케스트라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악기들이 합을 이루어 하나의 곡을 만든다. 하지만 빅 밴드 형식이 아니라면 보통 1~6명 정도의 소규모 구성인 경우가 많은데, 평균적으로는 트리오(3인조), 콤비(4인조), 퀸텟(5인조) 구성이 제일 많다. 그중에서도 재마카세 시리즈로 소개될 음반은 하드밥이 유행하던 시절에 발매된 작품들이기에 이러한 형태를 더욱 완연하게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보통 재즈 세션은 어떤 악기로 이루어져 있을까?

가장 기본적인 구성은 피아노 트리오로써, 피아노/드럼/베이스가 한 팀인 경우를 말한다. 보통 피아노 연주자가 앨범의 세션 리더인 경우, 피아노 트리오나 트리오에 트럼펫이나 색소폰 같은 금관악기를 하나 붙여 콤비일 확률이 높다. 앞서 언급했듯 피아노 트리오는 재즈에서 한 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후에 설명하겠지만 각 세션이 솔로를 진행할 때 피아노 트리오가 기본적으로 리듬 섹션을 담당한다. 다시 말하면 트럼펫/색소폰 솔로 파트 진행 시 해당 악기만 연주되는 것이 아니라, 금관악기가 멜로디 라인을 연주하면 피아노 트리오가 리듬을 맡아 파트를 좀 더 역동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피아노를 제외한 피아노 트리오 멤버들의 솔로임일 경우에는 드럼과 베이스가 협력단신으로 연주되곤 한다.

그렇다면 피아노와 비슷한 오르간이 트리오의 멤버가 되면 어떨까? 피아노 트리오와 마찬가지로 오르간/드럼/베이스 일까? 아니다. 오르간은 베이스의 멜로디와 리듬을 동시에 도맡기 때문에, 오르간이 트리오의 일부가 되면 오르간/드럼/기타로 구성된다. 그래서 오르간이나 기타가 세션 리더가 될 경우에는 갑자튀김과 콜라처럼 이 두 악기가 세트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Jimmy Smith라는 오르간 연주자가 앨범의 리더일 때는, 베이스 연주자가 아닌 기타 연주자가 앨범에 참여한다.

재즈의 음악적 측면 1

재즈를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무엇일까? 호흡? 편안한 분위기? 침착맨과 주호민?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즉흥연주'라는 키워드를 떠올린 사람도 분명 있을 것이다. 재즈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잼 세션'이라는 세션끼리 즉흥 연주를 통해 음악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들어봤을 것이다. 이를 통해 '재즈 = 즉흥성'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재즈는 굉장히 체계적인 음악적 구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모든 재즈 넘버(특히 프리재즈)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통 진행은 다음과 같다.

[Main Theme - Solo Part - Solo Part 2 - (Solo Part 3) - Main Theme]

트럼펫/피아노/드럼/베이스 구성의 콤비를 예시로 들었을 때, 우선 리더 악기(혹은 피아노)가 곡의 주제가 되는 메인 멜로디 라인을 연주하고, 그 뒤에서 피아노 트리오는 열심히 리듬 섹션을 담당한다. 그런 다음 콤비 안에 있는 악기들의 솔로가 각각 연주된 후, 다시 한 번 메인 멜로디라인으로 복기하여 트랙이 마무리된다.

이번에는 트럼펫(리더)/색소폰/피아노/드럼/베이스 콤비 구성으로 예시를 들어보자. Main Theme은 금관악기 중 하나가 도맡거나 둘이 동시에 하나의 멜로디라인을 다르게 해석하여 연주한다.(피아노가 연주할 수도 있다!) 솔로 파트는 보통 리더를 담당한 악기가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으로는 다른 금관 악기가, 마지막으로는 피아노 트리오 중 한 악기가 솔로 연주를 하고 다시 Main Theme으로 돌아온다. 이러한 흐름만 알고 있더라도 웬만한 재즈 넘버들이 색다르게 들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런데 재즈 음악을 듣다 보면 이 파트가 도대체 어떤 악기인지 궁금할 때가 많다. 그중에서도 가장 헷갈리는 건 트럼펫과 색소폰, 가끔 등장하는 트럼본 등 금관악기일 것이다. 단순하게 이야기 하자면, 바이올린-비올라-첼로-콘트라베이스와 같이 악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낮은 소리가 난다. 현 악기에서 금관악기로 돌아와서 악기의 크기로 분류했을 때 순서는 트럼펫-색소폰-트럼본이니 좀 더 높은 소리를 내는 게 트럼펫, 낮은 소리를 내는 악기가 색소폰과 트럼본이다. 각 연주자의 솔로 파트를 들어보았을 때 트럼펫과 색소폰은 확연하게 음의 높낮이에서 차이가 있으니, 이렇게 캐치하는 게 가장 쉽고 간편한 방법이다.

재즈의 음악적 측면 2

재즈 앨범을 여럿 들어본 사람들이라면 분명 같은 제목의 트랙이 다양한 음반에 수록된 걸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보통 이를 '스탠다드 넘버'라고 하는데, 이전에 널리 사랑받은 노래들을 재즈 연주자들이 재해석하게 된다. 그중에서도 특히 셋리스트에 꾸준하게 포함된 곡들이 재즈 스탠다드로 굳혀진 것이다. 당장 유튜브에 유명한 재즈 스탠다드 넘버 "Come Rain or Come Shine"을 검색하면 수많은 아티스트의 버전이 나온다. 스탠다드를 통해 같은 곡이더라도 구성, 연주, 연주 회차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상이한 분위기가 연출된다.

Album 1

Blue Hour (Blue Note No. 4057)

Stanley Turrentine With The Three Sounds

Members

Stanley Turrentine – 테너 색소폰

Gene Harris – 피아노

Andrew Simpkins – 베이스

Bill Dowdy – 드럼

Tracklist

- 1 "I Want a Little Girl" (Murray Mencher, Billy Moll) – 7:03
- 2 "Gee Baby, Ain't I Good to You" (Andy Razaf, Don Redman) – 5:20
- 3 "Blue Riff" (Gene Harris) – 6:26
- 4 "Since I Fell for You" (Buddy Johnson) – 8:46
- 5 "Willow Weep for Me" (Ann Ronell) – 9:55

Introducing

전곡 스탠다드 넘버 구성으로 재즈 입문자도 부담 없이 감상할 수 있는 <Blue Hour>. 피아노 트리오인 The Three Sounds가 사람들에게 편안한 음악을 선사한다는 점으로 어필을 했기 때문인지 테너 색소폰 연주자 Stanley Turrentine과의 합작 앨범에서도 유사한 매력을 보여주었다. 색소폰과 피아노 트리오가 함께하는 쿼텟 구성이기에 색소폰과 피아노가 솔로 파트를 주고받는 것으로 트랙이 진행된다. 이러한 구성이 자칫 단조롭게 느껴질 수 있으나, 스탠다드 넘버만의 친숙한 멜로디라인, Gene Harris의 화려하진 않지만 깔끔한 연주, Stanley Turrentine의 달콤하면서도 묵직한 스타일을 명확하게 감상할 수 있다는 장점도 분명하게 다가온다. 또한, 금조된 세션이 아닌 꾸준히 합을 맞춰온 피아노 트리오이기 때문에 안정감 있는 연주를 들을 수 있다는 건 덤이다.



Album 2

Roll Call (Blue Note No. 4058)

Hank Mobley

Members

Hank Mobley - 테너 색소폰

Freddie Hubbard - 트럼펫

Wynton Kelly - 피아노

Paul Chambers - 베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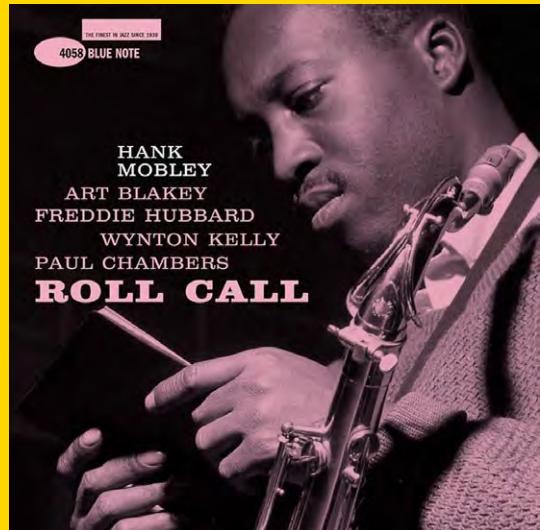
Art Blakey - 드럼

Tracklist

- 1 "Roll Call" - 10:33
- 2 "My Groove Your Move" - 6:07
- 3 "Take Your Pick" - 5:27
- 4 "A Baptist Beat" - 8:54
- 5 "The More I See You" (Warren, Gordon) - 6:47
- 6 "The Breakdown" - 4:57
- 7 "A Baptist Beat" [alternate take] - 9:42

Introducing

한 교실 안에 다양한 학생들이 존재하듯, Hank Mobley의 주도하에 <Roll Call>에서 모인 다섯 명의 음악가들은 앨범의 타이틀처럼 각자의 개성으로 응답한다. 여섯 곡 중 다섯 트랙을 본인이 작곡하며 연주뿐만 아니라 작곡 역량까지 선보인 캄보의 리더 Hank Mobley를 비롯하여 과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힘찬 음색으로 하드 밥의 활기와 역동성을 강조한 Freddie Hubbard. 더불어 Wynton Kelly, Paul Chambers, Art Blakey로 구성된 피아노 트리오 또한 리듬 섹션과 솔로잉까지 맡은 바를 충실히 수행한다. 특히 앨범의 셀프 타이틀 트랙 "Roll Call"에서 이어지는 각 파트의 긴 솔로 파트는 하드 밥의 매력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며, 그중에서도 Art Blakey의 전쟁터의 총성과도 같은 연주는 드럼도 솔로잉으로 강렬한 인상을 선사할 수 있다는 인상을 남긴다.



Album 3

Undercurrent (Blue Note No. 4059)

Kenny Drew

Members

Kenny Drew – 피아노
Freddie Hubbard – 트럼펫
Hank Mobley – 태너 색소폰
Sam Jones – 더블 베이스
Louis Hayes – 드럼

Tracklist

- 1 "Undercurrent" - 7:20
- 2 "Funk-Cosity" - 8:28
- 3 "Lion's Den" - 4:56
- 4 "The Pot's On" - 6:08
- 5 "Groovin' the Blues" - 6:22
- 6 "Ballade" - 5:32

Introducing

앨범 타이틀처럼 피아니스트 Kenny Drew는 본인을 앞세우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가 블루노트 레코드에서 발매한 리더 앨범도 본작을 포함하여 두 장뿐이었고, 그마저도 팀이 10년 가까이 되었으니 말이다. 연주 실력과 더불어 <Undercurrent>의 전곡을 작곡할 정도로 곡을 만드는 역량도 출중 했으나, "Ballade"를 제외하면 앨범에 참여한 두 관악기 세션 Freddie Hubbard의 현란함과 Hank Mobley의 밀도 높은 퍼포먼스가 돋보일 수 있도록 연주의 흐름을 구성하였다. 셀프 타이틀 "Undercurrent"에서 격동을 한 차례 보여준 후 나오는 다음 트랙들은 Kenny Drew의 성향만큼 차분한 들판거림에 가깝다. 특히 마지막 트랙 "Ballade"에서는 전형적인 하드 밥 스타일의 넘버는 아니지만, Kenny Drew가 전개하는 서정성에 모든 멤버들이 동화되는 고요한 마무리를 선사한다.



Album 4

Headin' South (Blue Note No. 4062)

Horace Parlan

Members

Horace Parlan – 피아노
George Tucker – 베이스
Al Harewood – 드럼
Ray Barretto – 콩가 (tracks 1, 2, 4, 5, 7 & 8)

Tracklist

- 1 "Headin' South" – 4:29
- 2 "The Song Is Ended" (Irving Berlin) – 5:55
- 3 "Summertime" (George Gershwin, DuBose Heyward) – 5:59
- 4 "Low Down" – 5:30
- 5 "Congalegrie" (Ray Barretto) – 4:24
- 6 "Prelude to a Kiss" (Duke Ellington, Irving Gordon, Irving Mills) – 5:28
- 7 "Jim Loves Sue" (Ahmad Jamal) – 4:32
- 8 "My Mother's Eyes" (Abel Baer, L. Wolfe Gilbert) – 5:21

Introducing

피아노 트리오에 금관악기가 더해지지 않는다면, 보통 그 앨범의 리더는 피아노 세션이 되고 피아노를 중심으로 앨범이 전개된다. 하지만 Horace Parlan은 기본 피아노 트리오 구성에 타악기인 콩가를 추가함으로써 색다른 방향의 음반을 만든다. 현대 음악의 두 거장 George Gershwin과 Duke Ellington의 노래를 자신의 입맛대로 편곡함과 동시에 기존의 곡을 주로 활용하면서 낯설지 않은 분위기를 자아내었다. 동시에 두 곡을 제외하고 콩가를 적극 투입하여 리듬 섹션에 무게감을 더했고, 피아노와 함께 스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며 앨범의 흐름이 뻔한 감성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구성하였다. Horace Parlan의 배려 덕에 진중함 뿐만 아니라 유쾌함까지 함께 감상할 수 있으며, 그의 뿌리인 '남쪽'을 지향한 것이 틀린 선택이 아니었음을 새삼 알게 되는 작품이다.



FEATURED

몰라

나

힙합 안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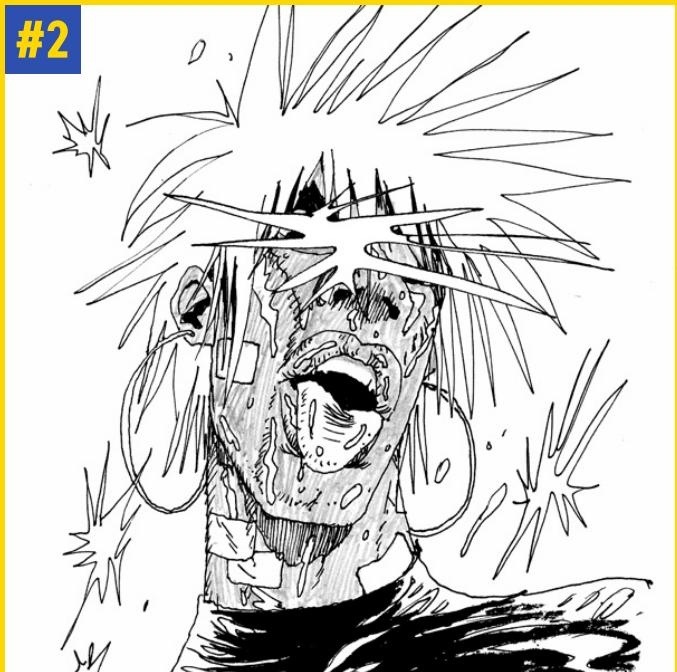
by BlackMatter, 자카,denim



#1



#2

**Psykos****Bladée & Yung Lean**

TRACK 1. Coda / 2. Ghosts / 3. Golden God / 4. Still / 5. Sold Out / 6. Hanging From The Bridge / 7. Enemy / 8. Things Happen

DATE 2024. 03. 13

EDITOR BlackMatter

래퍼에게 락이란 어떤 존재일까. 래퍼의 기틀에서 벗어나 Hip-Hop 이외의 장르를 시도하는 래퍼들의 영수증에는 어쩐지 항상 락이라는 단어가 인쇄되어 있는 듯하다. 스웨덴에서 클라우드 랩씬의 기틀이 되어온 Drain Gang의 Bladée와 Sad Boys의 Yung Lean은 기존 그들이 전개해온 음악에서 우울함이라는 키워드를 스포이드로 뽑아내 얼터너티브 락과 포스트 평크에 그대로 짜냈다. Doomer 세대의 상징과도 같은 포스트-펑크와 앨범 전체에 만연해 있는 리버브 걸린 악기들은 삶과 죽음, 마약과 집착에 가까운 짹사랑 등을 다루는 블레이드와 영 린의 가사는 놀랄게도 하나로 어우러진다. 중얼거림에 가까운 힘없는 이들의 래핑은 드릴 팝의 요소와도 훌륭하게 어우러져 부드러운 멜로디를 만들어내는데 최적이기도 하다. 그 완성도에는 분명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10년을 웃도는 세월 동안 상당히 유사한 스타일을 유지해온 두 아티스트의 협업이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방향성의 앨범으로 끝맺어진 것은 상당히 인상깊으면서도 의미있는 결실로 여겨진다.

Pxe**Ecco2k**

TRACK 1. Pxe / 2. In the Flesh / 3. Jalouse / 4. No***'s Song / 5. Big Air

DATE 2021. 03. 31

EDITOR BlackMat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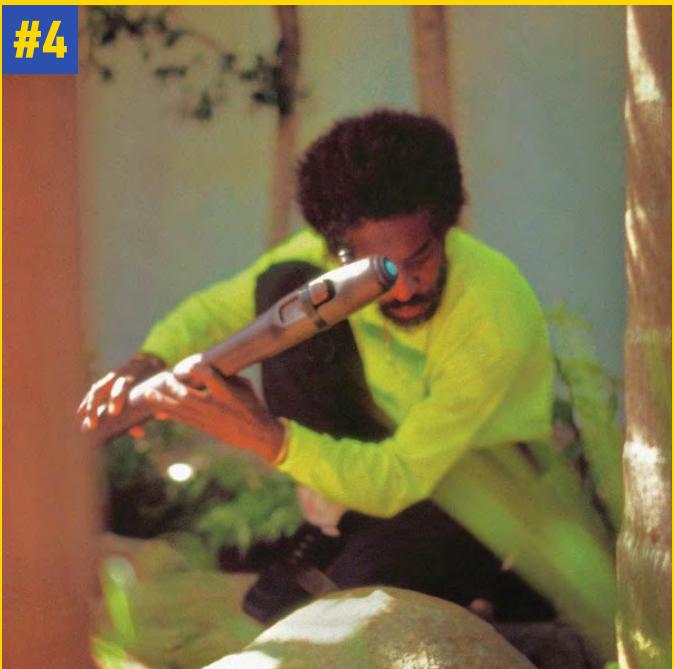
어쩌면 본 피쳐에서 가장 놀랄지 않은 앨범일지도 모르겠다. Draing Gang과 Ecco2k는 커리어 초충반기부터 꾸준히 전자음악의 요소를 작품들 속에 녹여내왔다. Ecco2k의 두 번째 EP <Pxe>는 첫 번째 EP <Crush Resist (CR_2015)>에서 선보였던 인더스트리얼적 요소에 글리치를 더해 그가 그동안 선보였던 음악들을 한곳에 모았다. 산발적인 전자음의 포화가 이어지는 인트로 트랙 "Pxe"를 지나 청자를 맞이하는 "In the Flesh"와 "Jalouse" 같은 트랙은 하이톤의 에코의 싱잉과 만나 조금은 난해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앨범의 사운드를 완성시킨다. 특히 "Jalouse"의 디스토션은 전작 <E>에서부터 이어져왔던 내면의 고통을 청각화하는 듯하다. 본작의 에스테틱 또한 인상적이다. 앨범 커버와 비주얼라이저에서 보여지는 코믹풍의 일러스트와 애니메이션은 사운드와 같이 힙합에서는 멀리 떨어져있다. 모두에게 편안하고 익숙한 사운드는 결코 아니지만 컬트적인 팬덤을 이끌어내는 데에는 최적이었던 드레인 갱의 특성은 에코의 새로운 음악인 Pixie Music에서도 드러나는 듯하다.

몰라 나 핵 핵 악해

#3



#4



Let's Start Here. Lil Yachty

TRACK 1. the BLACK seminole. / 2. the ride- / 3. running out of time / 4. pRETTy / 5. :(failure:(/ 6. THE zone~ / 7. WE SAW THE SUN! / 8. drive ME crazy! / 9. IVE OFFICIALLY LOST VISION!!!! / 10. sAy sOMETHING / 11. paint THE sky / 12. sHould i B? / 13. The Alchemist. / 14. REACH THE SUNSHINE.

DATE 2023. 01. 27

EDITOR BlackMatter

2010년대 힙합씬에 가장 많이 모습을 드러낸 래퍼들은 그 누구도 아닌 'Lil' 계열의 래퍼들일 것이다. Lil Baby, Lil Uzi Vert, Lil Peep, , Lil Tecca, Lil Keed, Lil Tjay, Lil Pump와 국내의 Lil tachi, Lil Cherry, Lil Boi, Lil CHIMCHI까지. 스포티파이에 공식 등록된 8000명이 넘어가는 'Lil' 래퍼들 중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변화를 택한 Lil Yachty의 <Let's Start Here.>는 기존 릴 야티가 선보이던 일명 '양산형 트랩'의 색을 완벽히 벗어던지며 그를 새로운 결의 아티스트로 변모시켰다. Pink Floyd를 강하게 연상시키는 사이키델릭 사운드는 뻔한 줄로만 알고 있었던 아티스트에게서 새로운 방향으로의 깊은 연구를 발견시켜줬으며, 이는 모두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본작의 강점은 단지 거장들이 창시해낸 사이키델릭 사운드의 훌륭한 모방에서 그치지 않는다. 릴 야티 특유의 공기 섞인 톤을 이용해 진성과 가성을 넘나드는 싱잉, 그리고 곳곳에서 발견되는 피쳐링과 코러스로 구축해낸 본인만의 색은 <Let's Start Here.>가 단지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지표가 아닌 하나의 작품으로써도 인상적인 위치에 놓여있음을 증명한다. 본작 이후 발매된 싱글들과 Concrete Boys의 컴필레이션 앨범에서 보여준 드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은 <Let's Start Here.>에서 새로 출항한 요트가 순항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만 같다.

New Blue Sun André 3000

TRACK 1. I Swear, I Really Wanted to Make a 'Rap' Album but This Is Literally the Way the Wind Blew Me This Time / 2. The Slang Word P(*)ssy Rolls Off the Tongue with Far Better Ease Than the Proper Word Vagina. Do You Agree? / 3. That Night in Hawaii When I Turned into a Panther and Started Making These Low Register Purring Tones That I Couldn't Control ... Sh¥t Was Wild / 4. Buy-PoloDisorder's Daughter Wears a 3000® Button Down Embroidered / 5. Ninety Three 'Til Infinity and Beyoncé / 6. Ghandi, Dalai Lama, Your Lord & Savior J.C. / Bundy, Jeffrey Dahmer, and John Wayne Gacy / 7. Ants to You, Gods to Who? / 8. Dreams Once Buried Beneath the Dungeon Floor Slowly Sprout into Undying Gardens

DATE 2023. 11. 17

EDITOR 자카

안드레 3000(André 3000)이 2023년 6월 Killer Mike의 "SCIENTISTS & ENGINEERS"에 참여했을 때만 해도 필자를 포함한 다수의 리스너들은 그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등장해, 곡의 대미를 아름답게 장식하고 유유히 사라지는 '랩 도사'로 남으리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발매 3일전 굉장히 뜬금없게 예고된 그의 첫 솔로 프로젝트 <New Blue Sun>은 OutKast 시절의 서던 힙합도, "Life Of The Party"에서 보여준 컨셔스 힙합도 아닌, 앰비언트 작품이었다. 그러나 우려와 실망에도 불구하고, <New Blue Sun>은 굉장히 훌륭한 모양새를 갖춘 채 세상에 공개되었다. 외딴 평야의 초록색 벌장을 연상시키는 아름다운 사운드스케이프, 예상 외로 너무나도 뛰어난 플루트 연주는 가히 일품이다. 또 신디사이저와 패드, 관악기 등 다양한 악기를 사용해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내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또한, 그저 평온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강렬하고 어두운 순간들 역시 존재하여 밋밋하다는 감상을 받지 않게 한다. "난 진짜 '랩' 앨범을 만들고 싶었지만, 바람이 날 이곳으로 이끌었다", "하와이에서의 그날 밤, 내가 표범으로 변해 날막지 못하고 낮은 음역대의 소리들을 냈던 때", "던전 바닥에 묻혀있던 꿈이 불멸의 정원으로 서서히 썩을 틔우다". 이렇게 의미 없어 보이는 트랙들의 타이틀 역시 앨범을 감상하는 데에 있어 소소한 재미이다. 단지 앰비언트 앨범이라는 이유로 아직까지 본 작품에 대한 감상을 미루고 있다면, 부디 그저 자면서라도 한 번씩 들어보기를 권한다.

몰라나

#5



#6



"Awaken, My Love!" Childish Gambino

TRACK 1. Me and Your Mama / 2. Have Some Love / 3. Boogieman / 4. Zombies / 5. Riot / 6. Redbone / 7. California / 8. Terrified / 9. Baby Boy / 10. The Night Me and Your Momma Met / 11. Stand Tall

DATE 2016. 11. 02

EDITOR denim

장담컨대 "Redbone"의 첫 소절을 들었을 때 차일디시 감비노(Childish Gambino)의 팬클럽 회장조차 이게 뭔가 싶었을 것이다. 이전 앨범의 짙은 힙합 색채가 사라지고 익숙한 랩 대신 여성 가스펠 싱어의 허스키한 가성이 들려왔기 때문이다. 필자도 반 년 후에야 그 목소리가 감비노 본인임을 알았다. 그리고 <"Awaken, My Love!">가 얼마나 아름다운 작품인지 이해하기까지는 이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 앨범은 현 세대에게는 생소할 60-70년대 사이키델리아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커버부터 횃코드의 정점인 George Clinton의 그룹 Funkadelic의 <Maggot Brain>을 오마주하며 의도를 분명히 한 감비노는 디스토션 기타, 성가대 보이싱, James Brown의 샤우팅을 활용하며 그 시대에 대한 존경을 표한다. 특히 'Have Some Love'는 Sly and the Family Stone이 재결합해 참여했다고 믿을 정도로 사운드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나다. 그러나 앨범은 단순히 옛 사운드를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퍼커션과 베이스 리듬 위에 오토크루이 섞인 싱잉을 선보인 "California"를 기점으로 작품의 후반부는 과거의 장르들을 현대식으로 재정립하며, 그 노력은 최종곡 "Stand Tall"에서 정점을 찍는다. 한 명의 평범한 래퍼가 선조들과 음악을 향한 사랑을 담아내며 시대의 아티스트로 승화한 순간: <"Awaken, My Love!">는 필청할 이유로 넘쳐난다.

Speedin' Bullet 2 Heaven Kid Cudi

TRACK Disc 1 1. Edge of the Earth/Post Mortem Boredom / 2. Confused! / 3. Man in the Night / 4. Screwed / 5. Fade 2 Red / 6. Adventures / 7. The Nothing / 8. AMEN / 9. Handle with Care / 10. Judgemental Cunt / 11. Séance Chaos / 12. Fairy Tale Remains / 13. Wedding Tux / 14. Angered Kids / 15. Red Sabbath / 16. Fuchsia Butterflies / 17. Speedin' Bullet 2 Heaven / 18. Embers

Disc 2 1. Anomaly (Rehearsal Demo) / 2. The Return of Chip Douglas (Demo) / 3. Wanna Say (Rehearsal Demo) / 4. Insides Out (Rehearsal Demo) / 5. Speedin' Bullet 2 Heaven (Acoustic Demo) / 6. Worth (Rehearsal Demo) / 7. Melting (Rehearsal Demo) / 8. Confused! (Acoustic Demo) / 9. Judgemental Cunt (Acoustic Demo)

DATE 2015. 12. 04

EDITOR 자카

<Man On The Moon> 2부작과 <Indicud>를 비롯하여, 준수한 월리티의 팝 랩 내지 사이키델리아 앨범들을 발매해오던 키드 커디(Kid Cudi)는 그의 정규 5집 앨범 <Speedin' Bullet 2 Heaven>에서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락'이라는 장르를 시도하였다. 1시간 31분이라는 너무나도 긴 러닝타임에, 지루하고 너무나도 아마추어스럽다는 평가를 받으며 2015년 당해 최악의 앨범이라는 평가를 받는 본작. 그렇지만, 적어도 필자에게는, 본작은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진다. <Speedin' Bullets 2 Heaven>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울하며, 끔찍하고, 어둡다. 너무나도 많은 결점이 존재하며, 어느 때나 편하게 들릴 수 있는 작품이 아닌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키드 커디는 우울증과 자살 충동으로 인해 재활 치료를 받았었는데, 본작은 이랬던 당시의 자신의 모습을 어두운 그런지 사운드를 통해 완벽하게 표현해내었다. 몇몇 트랙들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당장에라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들이 들곤 한다. 너무나도 초보적인 락 사운드에, 또 지나치게 반복적이어서 피로감이 누적되는 것 역시 사실이다. 그러나 막상 앨범이 파멸에 이르면, 마음 속 어느 깊은 곳에 깊은 어두운 감정들이 남게 된다. 이 작품이 당장은 싫을지 몰라도, 우울이 당신을 덮쳐 어찌할 줄 모르겠을 때에 — 다시 방문해볼 것을 권한다. 키드 커디의 <Speedin' Bullets 2 Heaven>는 그의 예술적 자아의 가장 순수한 형태이자, 그를 조각조각내어 작은 광기의 조각들로 새긴, 도움을 요청하는 울부짖음이다.



FEATURED

당신이

레이저는
안녕하십니까?

by SongChico

'2020년대의 트랩 씬을 상징하는 사운드', '모쉬핏 최적화 장르', '카리 외 전부 카피캣인 장르' 등 많은 수식어와 오해에 둘러싸인 레이지(Rage)도 어느덧 탄생 5년차를 맞았다. 그를 기념해 누군가의 짧은 스니펫으로 시작해, 많은 래퍼들의 배경이 된 이 장르의 역사를 연도별로 어떻게 발전했는지 알아보려 한다.

2020년대 이전 ~ 2020년

레이지의 탄생은 분명히 2020년대에 해당되는 사건이지만 그 전에도 '반복적이고 높은 피치의 신스를 올린 트랩 사운드'는 존재했다. 가장 먼 경우는 Future의 "I Serve the Base"로, 지금으로부터 약 10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하지만 역시나 레이지의 탄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은 플레이보이 카티(Playboi Carti)와 당시 그의 훌륭한 파트너였던 Pi'erre Bourne이라고 보아야 한다. 2017년에 공개한 셀프 타이틀 믹스테이프의 수록곡 "wokeuplikethis**"와 1년 뒤 공개한 <DIE LIT>에 현재 레이지의 접근법을 이용해 제작한 트랙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이후엔 Zaytoven의 플러그(Plugg) 사운드를 새롭게 해석하며 SoFaygo, UnoTheActivist, Ken Carson 등 많은 래퍼들이 초기 레이지 사운드를 구성하기 시작했다. 레이지는 또한 트레드(Tread)와의 약한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있다. 프로듀서 그룹 Working on Dying이 선보이는 특유의 스타일로 시작한 이 사운드는 사이키델릭한 분위기와 신스를 이용한 트랩 사운드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공유하며, Working on Dying 소속의 BNYX와 F1lthy는 레이지를 대표하는 프로듀서가 되었다.

주요작



<Whole Lotta Red>
Playboi Carti



<Off the Map>
SoFaygo



<Blood on My Jacket>
Drippin So Pretty

2021년~2022년

2021년은 레이지의 역사를 논할 때 가장 중요한 한 해이다. 2020년이 끝나갈 무렵, 트리피 레드(Trippie Redd)가 "Miss the Rage"의 스니펫을 공개했고 이 장르의 영원한 바이블로 남을 <Whole Lotta Red>가 발매되었다. 이후 트리피 레드는 방금이라도 퓨처베이스에서 건져 올린 듯한 트랩 사운드를 담아낸 앨범 <Trip At Kinght>를 발매했다. 이 앨범에 수록된 "Miss the Rage"는 컬트적인 인기를 끌며 이 장르가 가진 이름의 이유가 되었고, <Whole Lotta Red>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시작되었다. 카티가 많은 카피캣을 양산하던 와중엔 플럭앤비(PluggnB) 씬의 아이들, #SlayWorld가 플럭앤비에서

발전한 레이지를 완성하며 레이지 씬을 양분하기 시작했다. 어쩌면 이때부터 레이지에게 '카티 아니면 다 카피캣'이라는 수식어는 어울리지 않는 존재였을 것이다. 이 시기는 레이지에 대한 해석이 끝나고, 더 나아가서는 레이지 아티스트들이 자신만의 레이지를 탐구하기 시작하기 시작한 순간이다.

주요작



〈Trip At Knight〉
Trippie Redd



〈Up 2 Mē〉
Yeat



〈Unoverse 3〉
UnoTheActivist

2023~2024년

'강렬한 사운드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UK 드릴이 보여주었던 선례에도 불구하고, 레이지는 최근 2년 간 계속해서 힙합 씬의 메인을 차지했으며, 레이지 씬 자체적으로는 포스트 레이지 단계에 진입했다. 그 주역들엔 '카티의 아이들' OPIUM의 멤버들도 포함된다.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은 것은 Destroy Lonely로, 자신의 첫 정규 앨범 〈If Looks Could Kill〉에선 90년대 호러 영화라는 컨셉을 이용해 레이지에 이모 랩의 감성을 더 했으며 사운드적으로는 앰비언트 팝에서 영향을 받은 Lonely 만의 조용한 레이지를 완성했다. 이어 Homixide Gang은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한 일렉기타 사운드를 통해 캡스터 랩을 레이지에 더했고, Ken Carson은 레이지 사운드 자체의 범위를 넓혀가며 OPIUM은 레이지 씬을 이끌어가는 존재가 되었다. SlayWorld의 외에 이후 자신을 대변하는 사운드를 찾아나선 Yeat 역시 특유의 레이지 사운드를 들고 나왔다. 이는 올해 발매한 〈2093〉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계속해서 차가운 톤을 유지하는 인더스트리얼 힙합과 일렉트로 등 다양한 미래지향적 사운드를 통해 사이버 평크라는 기억을 충실히 수행했으며, 기존의 레이지와는 달리 신스의 피치가 현저히 낮은, 신스가 밑에서 울리는 독창적인 사운드를 완성시켰다. 아예 레이지와는 접점이 없을 것 같은 Bladee마저 F1lthy의 손을 잡고 〈COLD VISIONS〉를 제작하며 레이지와 트레드, 클라우드 랩을 한 곳에 합쳐 놓았다는 점 역시 언급하고 넘어가야 한다. 그 외에도 OPIUM의 카피캣으로 커리어를 출발해 '다크 레이지'를 상징하는 이름이 된, Osamason, 카티를 발굴했던 Iann Coror가 지목한 유망주 Hardrock, Z세대 크루 4ersona의 Che와 Rich Amiri 등 레이지 씬은 든든한 유망주들을 키워내고 있다.

2023년부터는 레이지를 주 장르로 삼지 않았던 메인스트림의 래퍼들도 본격적으로 레이지 트랙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Let's Start Here.〉로 반전 드라마를 써낸 Lil Yachty는 해당 앨범 이전, "Poland"를 통해 컬트적인 인기를 끈 것에 이어 이후로도 다수의 레이지 트랙을 발매했다. 또한 힙합 씬의 두 거물, Travis Scott과 Kanye West도 자신들의 앨범에서 '뱅어'가 필요한 순간마다 레이지 트랙을 배치한 사실로 미루어 현재 힙합 씬의 래퍼들이 레이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레이지는 강렬한 사운드를 사랑하곤 한다. 그 점은 '뱅어'와 '모쉬핏'에 더 가까워지는 길인 동시에, 쉽게 피로감을 주는 단점으로 작용한다. 2023년,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뉴재즈(New Jazz)는 그런 레이지에서 파생되었으며 레이지의 단점을 제거한 사운드에 가깝다. LunchBox의 손에서 탄생한 이 사운드는 금방 틱톡이라는 지름길을 타고 새로운 '바이럴 뮤직'이 되어 최근엔 아예 그 이름에 걸맞게 레이지의 신스를 건반, 현악기, 관악기 등 재즈 음악에서 등장하는 악기들로 대체하기 시작했다.

이렇듯이 최근의 레이지 씬은 트렌드에 머물렀다 사라졌던 다른 장르들과 같은 길을 갈 수 없다는 듯, 계속해서 새로운 사운드와 기mic을 연구 중에 있고 적어도 당분간은 안녕할 예정이다.

주요작



<2093>
Yeat



<Flex Musix>
OsamaSon



<COLD VISIONS>
Bladee



<A Great Chaos>
Ken Carson

FEATURED

도화선과 콕발

힙합의 역사적인 디스곡들에 대해

by 온암

디스(Diss). 범죄와 폭력의 땅에서 피어난 문화인 힙합에겐 필연적인 동반자였을지 모르나, 그 사실을 차치하고도 이 격정적인 경쟁은 랩 게임의 스포츠화에 지대히 기여하며 힙합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차지했다. 물론 소위 비프(Beef)라고 지칭되는 아티스트 간의 전쟁이 힙합의 전유물은 당연히 아니다. 당장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밴드의 두 주축이 벌인 치열한 신경전을 비롯해, 락앤롤 인사들의 신경질적인 전초전은 꽤나 강성이지 않았는가? 그러나 그 어느 때를 돌아봐도 힙합의 전쟁만큼이나 직설적이고, 잔인하고, 영향력이 큰 음악적 충돌은 존재치 않았다. 고작 딱 한 번의 공격만으로 상대의 이미지를 뒤바꾸고, 음악 시장의 흐름까지 조정하며, 때로는 사람의 생명마저 앗아가는 역사적인 디스곡들은 시대를 불문하고 어느 때나 존재해왔다. 힙합의 목소리가 녹음될 때부터 반 세기가 경과된 지금까지 말이다. 본 피처는 디스전 촉발의 계기가 된 곡과 그로 인해 진행된 디스전에서 가장 중요했던 혹은 가장 큰 충격을 일으킨 곡을 다룬다.



Roxanne Wars

로하선 UFTO - Roxanne, Roxanne(1984)

모두가 힙합 디스전의 촉발을 Kool Moe Dee, LL Cool J, BDP 등의 빅네임으로 기억하고 있을 때, 최초로 녹음된 디스전의 단초는 헌 라임 클로세움의 전경과는 사뭇 거리가 먼 작업물이었다. Kangol Kid를 필두로 세 명의 UFTO 래퍼가 'Roxanne'라는 이름의 한 여자에게 구애하다 실패한 내용을 담은 촌극 "Roxanne, Roxanne"는 신나는 비트와 우스운 스토리텔링으로 당시로선 흥행을 거두는 데 성공한다. 하지만 곡의 시퀄이 전혀 다른 전개로 진행될 줄, 그들 자신을 포함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로하선 Roxanne Shanté - Roxanne's Revenge(1984)

Marley Marl이 지금 같은 전설이 되기 전, 퀸즈 출신 소녀 Shanté가 Roxanne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전, 발상은 단순했다. Marley는 그저 당시 유행하던 "Roxanne, Roxanne"의 비트 위 Shanté가 주연으로 서길 바랬고, Shanté는 바로 그 'Roxanne'로서 분하여 남성들을 가볍게 조롱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녀의 랩 실력과 답가의 서사적 효과 모두 과소평가되어 선 안되었다. UFTO 측은 "The Real Roxanne"를 앞세워 선전포고에 답했고, 이후 단순한 흥미부터 유명세까지 다양한 목적을 지닌 이들이 우후죽순 트랙 위 연기자와 각본가를 자처했다. 최초의 디스전은 일종의 챌린지에 가까운 형태였던 것이다. 이때 Shanté의 나이는 고작 14살이었다.

N.W.A vs Ice Cube

도화선 N.W.A - Real Niggaz

N.W.A가 힙합 문화에 남긴 영향력은 가히 영적인 것이었으나, 정작 당시 그들은 위태로운 비즈니스였다. 멤버로서 그들의 일원이었으나 동시에 프로듀서이기도 했던 Eazy-E의 입장 때문이었을까? 혹은 매니저 Jerry Heller의 횡령 정황 때문이었을까? 전설적인 <Straight Outta Compton>의 돌직구는 정작 N.W.A 본인들에게도 반작용적 손해를 안겼고, 결국 Ice Cube가 가장 먼저 그룹을 탈퇴하게 되었다. N.W.A는 Cube를 배신자로 간주하며 "Real Niggaz"를 본격적인 시작으로 그들 특유의 폭력적인 언사로써 그를 공격했지만, 그들은 결코 잊어선 안됐다. N.W.A의 라임 노트는 Ice Cube의 소유였다는 것을.

특별 Ice Cube - No Vaseline(1991)

1991년 <Death Certificate> 발매. 그리고 Ice Cube는 그의 前 소속을 절멸시킬 각오가 되어있었다. "No Vaseline", 모든 면에서 힙합 디스곡의 교과서라 찬사받아 마땅할 명곡이다. Dazz의 디스코 샘플을 재해석한 흥겨운 비트 위, Cube는 호전적인 목소리와 강세 위주의 플로우를 운용하며 그가 분명 당대 최고의 서부 래퍼였음을 천명하고 당시 내부적으로 불안정했던 N.W.A를 해체 직전까지 밀어붙인다. 자신의 출신지를 자신이 직접 하무는 역설이 아닐 수 없다. 그 외에도 힙합에 호모포비아적 라임과 프로듀서를 하대하는 일종의 '코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이 디스 트랙의 문화적 영향력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어쩌면 웨스트코스트의 혈통이 디스전에 유난히도 능한 이유는 그들의 시초가 "No Vaseline"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Death Row Records vs Eazy-E

도화선 Dr. Dre - Fuck wit Dre Day (And Everybody's Celebratin')(1992)

"No Vaseline" 후 Dr. Dre까지 그룹을 탈퇴하며 N.W.A는 공중분해되었고, 이제 LA의 거물로 자리매김한 멤버들 간의 불화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Suge Knight와 함께 Death Row Records를 설립하며 Ruthless Records의 부당한 정산에 정면으로 불만을 표한 Dr. Dre는 한때 동료였던 Eazy-E를 가늠쇠울에 고정시킨다. <The Chronic>은 음악사의 일부를 수정시킬 만큼 지대한 영향력을 지닌 명반이었고, 그런 앨범의 실제적 오프닝이 디스곡이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독적인 지평크의 베이스를 앞세운 비트 위 Dre는 묵직한 목소리로 Eazy를 자극하고 도발한다. 사실 본 트랙은 차세대 힙합의 주인공을 자처한 Dre와 Snoop Doggy Dogg이 동서남북 사방면에 선전포고를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지만, 정작 만족할 만한 답신을 보낸 이는 같은 서부 측뿐이었다.

특별 Eazy E - Real Muthaphuckkin G's(1993)

Eazy의 죽음과 지평크 유행의 종결에도 불구하고 "Real Muthaphuckkin G's"는 여전히 힙합 역사상 최고의 디스곡 중 하나이다. 비트의 신스 사운드에 버금갈 정도로 따가운 Eazy-E의 하이톤은 또 다른 방식으로 지평크라는 장르 자체를 청각화하고 있었다. 디스의 내용을 제하고 그저 음악만으로도 걸출한데, Eazy는 구차한 미사여구 없이도 더욱 예리하게 논리적 허점을 지적했다. 갱스터였던 적이 없음에도 갱스터 행세를 하는 Dre를 조롱하고, Dre의 음원 수익이 Ruthless Records에게 향하는 계약 구조를 적시하며 그가 이 싸움에서 한 수 더 노련하다는 사실을 과시했다. 그 후 Dr. Dre와 Snoop Dogg은 힙합 역사를 통틀어서도 다섯 손가락에 꼽힐 만한 승승장구를 이어갔으나, 정작 Eazy의 디스에 답하진 못했다. 그리고 "Real Muthaphuckkin G's"는 아직까지도 90년대의 황금기를 장식한 한 페이지로서 사랑받고 있다.

Common vs Ice Cube

도화선 Common - I Used To Love H.E.R.(1994)

동서부 간 장엄한 힙합 전쟁과 유사한 시기에 발생했으나 비교적 외전에 가까운, 그러나 그 쟁점은 힙합의 본질에 보다 근접한 대결이 있었다. 각 지역 힙합의 정수라 평할 만한 Common과 Ice Cube의 충돌은 갠스터 랩과 컨셔스 랩, 커머셜 힙합과 얼터너티브 힙합의 대립을 상징한다. 이제는 재즈 힙합의 클래식으로 평가받는 <Resurrection>의 수록곡 "I Used To Love H.E.R."에서 Common은 힙합을 한 여성으로 의인화시켜 당시 힙합에 대한 그의 소신을 밝혔다. 동향 출신의 No I.D.가 가공한 몽환적인 비트에 어울리는 서정성으로, 힙합의 상업화와 폭력적인 웨스트코스트 힙합에 대한 회의감을 예술적으로 표한 Common의 스토리텔링은 과연 시카고의 수재다운 실력에서 비롯된 결과물이었다.

족발 Common - The Bitch In Yoo(1996)

그러나 Common의 정중한 충고에도 불구하고, 서부 힙합에 대한 그의 가사를 불편하게 수용한 Ice Cube는 Mack 10의 "Westside Slaughterhouse"에서 서부 힙합 원조론을 내세우며 Common에게 과격하게 반격한다. 경력으로나 목소리의 힘으로나, 모든 면에서 Cube는 Common에 비해 강력해보이는 상대였다. 그러나 Common의 재능은 Cube 정도의 래퍼를 비교군에 포함시키기엔 너무나도 우수했다. 그는 Pete Rock의 "The Bitch In Yoo" 비트에서 상대의 주장과 자존심, 그 모든 것을 하나 빠짐없이 전부 몰락시키며 Cube를 완전히 굴복시켰다. 강태공의 어휘력과 논리적인 지성이 공격성과 명분까지 갖출 때, 과연 그 누가 Common의 천재적인 리릭시즘이 대항할 수 있단 말인가? 마초이즘의 핏줄을 가진 힙합에서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꺾은 순간이었다.





2Pac vs East Coast

도발션 The Notorious B.I.G. - Who Shot Ya?(1995)

도발의 의도가 일체 없었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상당히 시의적절한 시점에 발표된 탓에 힙합 디스의 역사에서 결코 제외될 수 없는 The Notorious B.I.G.의 싱글은 그 후폭풍만큼이나 지대한 자체 위력을 지니고 있다. 음산한 피아노 샘플과 견고한 드럼을 합성한 비트 위 Biggie는 육중한 목소리로 위협적인 언사를 가하며 동부 최고의 자리를 공고히 할 반사 이익을 꾀하고 있었다. 그러나 "Who Shot Ya?"의 발매 시기는 2Pac이 5발의 총격을 당하고 성폭행 논란으로 인해 수감된 전황과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2Pac은 "Who Shot Ya?"를 자신에 대한 도발로 간주했고, 결국 Tim Dog의 "Fuck Compton"으로부터 4년 동안 냉랭한 분위기를 유지하던 동서부 힙합간 대립이 Snoop Dogg의 The Source Awards 발언과 함께 폭발하게 되었다.

독발 2Pac - Hit 'Em Up(1996)

2Pac은 한때 아끼던 후배였던 Biggie에게 개인적인 배신감을 느끼던 중이었고, Death Row Records의 Suge Knight에게 회사와 지역을 대표해 동부에 대적할 거물급 래퍼가 필요했다. 둘의 수요는 정확히 부합했고, 2Pac은 작열하는 분노를 동력으로 쉼없이 작업에 임했다. 그리고 마침내 발매된 "Hit 'Em Up"은 전미를 뒤흔들어놓기에 충분한 화력의 곡이었다. Biggie의 아내였던 Faith Evans와 관계를 가졌다라는 충격적인 폭로에 더불어 순수한 혐오와 원색적인 비하를 퍼부은 Pac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야성적이었다. 디스 자체의 내용도 충격적이었지만, 이미 한 차례 총격을 당한 후에도 상대 쟁단의 진영에 대놓고 선전포고를 시전한 Pac의 무모함이야말로 힙합의 갱스터리즘과 부합해 그를 전설로 옹립한 주 요인이었다. 자신의 목과 마이크를 읊가미로 한데 묶어놓은 교수대의 성인을 목도하고 감탄을 금할 이가 어디 있겠는가? 이후 Biggie의 "Long Kiss Goodnight", Mobb Deep의 "Drop A Gem On 'Em" 등 동부의 반격은 계속 되었으나, 그 중 어떤 곡도 전쟁이 종식된 현재까지 "Hit 'Em Up"만한 악명을 떨치진 못한다.

LL Cool J vs Canibus

도화선 LL Cool J - 4, 3, 2, 1(1997)

힙합 디스의 역사에서 LL Cool J의 "4, 3, 2, 1"만큼이나 특이한 위치를 차지하는 곡은 전무할 것이다. Method Man & Redman, Canibus, DMX라는 굵직한 피쳐링 라인업도 그렇지만, 곡의 주인이 객원을 디스해 디스전을 촉발하게 된 어이 없는 이유가 결정적이다. Cool J의 마이크 문신을 빌리겠다는 Canibus의 리스펙은 전혀 의도치 않게 Cool J를 자극했고, 그는 Canibus를 간접적으로 디스하는 가사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대선배와 신예 간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LL Cool J는 랩스타의 시초격이기도 하나 배틀 래퍼의 시초격이기도 했다. 15년 동안이나 씬의 중요 인물로 군림한 그였던 만큼, 그 어떤 래퍼도 그에게 존경 대신 비판을 보낼 엄두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Canibus의 성정은 악독했고, 그 악독함에 걸맞는 실력 또한 갖추고 있었다.

족발 Canibus - Second Round K.O.(1998)

권투 경기 컨셉에 기반한 "Second Round K.O."는 무려 Wyclef Jean의 프로듀싱과 Mike Tyson의 지원으로 그 몰입감을 높여가며, Canibus는 특유의 신경질적인 톤과 압도적인 배틀 라임으로 LL Cool J의 드높은 자존감과 업적을 폄하해버린다. 물론 Cool J가 이에 답변하지 못한 것은 아니나, Canibus의 디스가 끼친 충격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LL Cool J와 Canibus가 오해를 풀며 화해하고, Canibus가 그 잠재력을 소진하고 몰락한 후에도 "Second Round K.O."만으로 여전히 최고의 배틀 래퍼 중 한 명으로 기억될 정도이니, 그 단일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겠는가?

JAY-Z vs Nas

도화선 JAY-Z - Takeover(2001)

Biggie 사후, 유력한 후보들은 공석이 된 뉴욕의 왕좌 주변을 배회하며 꾸준히 그들의 존재감을 내세웠다. JAY-Z가 "The City Is Mine"에서 그러했고, Nas는 "We Will Survive"에서 반대했다. 1996년 "Dead Presidents"의 샘플 클리어 문제로 시작된 둘 사이의 갈등은 Memphis Bleek의 "Nas Is Like" 표절 의혹으로 인해 디스전의 형태로 화했다. Hot 97 Summer Jam 공연에서 "Takeover"의 미완성 버전으로 Mobb Deep과 Nas에 대한 디스를 가한 Jay와 "Stillmatic Freestyle"로 반격한 Nas 간 전초전이 이루어진 후, <The Blueprint>의 발매와 함께 "Takeover"의 완성본이 공개되었다. 자신이 새로운 뉴욕의 제왕임을 천명하는 가운데, 그동안 Nas의 행보가 <Illmatic> 이후 체면치례하지 못할 정도로 부진했음을 팬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지적하는 Jay의 디스는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영리하고도 첨예했다. JAY-Z의 세련된 랩과 디스 컨텐츠 또한 곡의 고평가에 일조했지만, 현재까지도 "Takeover"가 꾸준히 고평가되는 이유는 The Doors를 감각적으로 차핑한 Kanye의 천재성 때문일 것이다.

족발 Nas - Ether(2001)

JAY-Z와 Nas의 갈등은 비즈니스적이며 동시에 개인적이었다. 다만 JAY-Z 측이 보다 비즈니스 측면에 집중한 반면, Nas 측은 철저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게임에 접근했다. "Takeover"는 음악적으로나 내용으로나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훌륭한 디스곡이었다. 때문에 Nas는 Jay가 던진 논점의 측면에서 역공했다. 업계 최고라 칭송받을 만한 특유의 작사력으로 이중의미를 담은 편치라인들과 무자비한 폄하를 이어간 Nas의 디스는 말 그대로 잔인했다. 그의 주장과 폭로보다도 더 강했던 것은 래퍼로서의 실력 그 자체였고, 오로지 랩 스킬 하나만으로 JAY-Z의 주장 자체를 무산시켜버린 Nas는 이후 <Stillmatic>으로 성공적으로 커리어를 연장했다. 두 전설은 이후 2006년 극적으로 화해하며 현재까지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Ether"라는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 Jay의 등쌀을 끊임없이 따갑게 만들고 있다.

50 Cent vs New York

도화선 50 Cent - Back Down(2003)

Ja Rule에게서 총알 9발을 맞고 뉴욕에게서 버림받은 50 Cent를 거둔 것은 서부 진영의 Dr. Dre와 그의 제자였던 디트로이트의 Eminem이었다. <Get Rich Or Die Tryin'>은 죽음에서 생활한 래퍼의 화려한 귀환을 넘어 힙합 역사에서 손꼽힐 만한 대형 데뷔 이벤트였고, "Back Down"은 그에 걸맞는 살벌함으로 당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Ja Rule의 존재를 강하게 부정하고 있었다. 문제는 50 Cent의 분노가 Ja Rule 한 명에게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Ja Rule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던 Terror Squad와 The L.O.X.를 "Piggy Bank"로 연이어 디스하게 되며, 뉴욕의 탕아는 자신의 고향과 맞불 게 된다.

족발 Jadakiss - Checkmate(2005)

50 Cent 특유의 호전성은 뉴욕의 주요 인사들에게까지 뻗쳤다. 그 중 The L.O.X.의 멤버인 Jadakiss에게까지 시비를 건 50의 자신감은 그 자신의 특출난 성공으로 보호받고 있었다. 그러나 Jadakiss는 그 자신감과 오만함까지도 산산히 부숴버릴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MC였다. The Alchemist의 비트 위 막힘없이 랩을 뺏어대는 Jadakiss는 고작 3분도 안되는 시간 내에 그가 결코 자신 수준의 MC가 못된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켜주었다. 50의 갱스터 컨셉을 지적하고 짧은 명성 따위로 둘 간의 간극을 매울 수 없다 주장하는 Jadakiss의 목소리에는 과연 베테랑다운 자신감이 서려있었다.

Drake vs Pusha T

도화선 Pusha T - Infrared(2018)

비트 비용 미지불로 시작된 Pharrell Williams와 Birdman 간의 분쟁은 10년을 아득히 초월해 현대 힙합에서 가장 중요한 디스전을 촉발하게 된다. 각각의 대리자로 지명된 Pusha T와 Lil Wayne 간의 견제는 Lil Wayne이 Drake로 교체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사업적인 갈등은 개인적인 갈등으로, 이내 그것마저 힙합 문화에서의 자긍심 충돌로 변형되는 가운데, Pusha T 가 <DAYTONA>의 수록곡 "Infrared"에서 Drake의 고스트라이팅과 팝스타로서의 정체성 등을 지적하며 양측의 갈등이 재점화된다. 지극히 사적이었던 대립에서 어느새 Pusha T는 갱스터-코크 랩과 기성 힙합을, Drake는 멜로디 랩과 팝의 색채를 띠는 메인스트림 힙합을 대표하고 있었다.

족발 Pusha T - The Story Of Adidon(2018)

물론, Drake는 기성 힙합의 패러다임에서도 여전히 래퍼란 타이틀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천부적인 실력을 가졌다. 당장 3년 전 그가 Meek Mill을 어떻게 분쇄해버렸는지 상기해본다면, 그가 결코 만만치 않은 상대란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실제로 "Duppy Freestyle"은 Pusha T의 위상에 부합할 만큼 탁월한 디스였다. 그가 무심코 Pusha의 가족을 건드렸다는 실수만 제한다면 말이다. Pusha T는 곧장 이 대결을 다시 개인적인 영역으로 견인해 Drake의 인간관계를 철저히 조사했고, 그렇게 "The Story Of Adidon"이 세상에 등장했다. JAY-Z의 "The Story Of O.J." 비트부터 Drake의 블랙 페이스 커버 까지, 이 디스곡은 곡 외의 영역에서부터 이미 그의 불안정한 정체성을 지적하고 있었다. 그리고 Pusha T는 잔인하리만치 무감정하게 Drake의 사생아와 40의 다발성 경화증을 폭로하며 Drake의 폐부를 관통했다. 이 강대한 사형선고에 Drake는 답변 없이 사상 최초로 자신의 패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견고히 벼려낸 장인의 마검이 과대하게 팽창한 대중성의 화신을 파멸시킨 순간이었다.

Eminem vs Machine Gun Kelly

도화선 Eminem - Not Alike(2018)

Drake가 Pusha T에게 처참히 짓겨지고 있을 무렵, 씬의 다른 곳에서는 그 이상으로 흥미로운 디스전이 발발하고 있었다. 2012년 Machine Gun Kelly는 Ja Rule의 건에서 하나 배운 것이 없었는지 Eminem의 미성년자 딸 Hailie를 성적으로 언급하는 트윗을 작성했다. Eminem의 오래된 팬보이였던 만큼 기자회견까지 열어 이에 대해 해명한 그였지만, Eminem은 해당초 Kelly에게 관심이 없었다. 구애에 가깝게 보일 정도로 구차한 Kelly의 공격은 언제나 일방적이었다. 결국 Eminem은 <Kamikaze>의 수록곡 "Not Alike"에서 MGK를 언급함으로써 그가 더 이상 불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했고, Kelly는 기다렸다는 듯이 "Rap Devil"을 공개했다. MGK의 디스곡이 공격과 리스펙, 유머를 적절히 섞어 Eminem이라는 거울을 상대로 선전했다는 평을 듣긴 했지만, 그 Eminem을 자극한 이상 Kelly의 패배는 이미 어느 정도 정해진 수순이었다.

죽발 Eminem - Killshot(2018)

사실 Slim Shady의 과거를 회상해본다면 MGK는 그의 체급에 비해 너무 하찮은 상대였다. 또한 "Killshot"이 분명 Eminem 최고의 디스곡도 아니다. 그러나 다윗과 골리앗의 구도가 상당히 흥미로웠다는 점, Eminem이 정말 오랜만에 디스 트랙을 발표했다는 점, 그리고 대중들 또한 그것을 원했다는 점에서 "Killshot"은 필연적으로 Eminem의 가장 중요한 디스곡이 될 수밖에 없었다. <Revival> 발매 이후 래퍼로서의 수명을 다해가고 있다는 평가에 중지를 올리기라도 하듯 Eminem은 다시금 절정에 달한 기량을 선보이며 그가 디수전의 제왕으로 불린 이유를 여실히 증명했다. Kelly의 모든 답변에 유연하게 반격한 것은 물론, 자신의 압도적인 체급을 과시하며 상대의 것보다 몇 배는 강력한 디스로 Eminem은 전 세계에 이번은 없음을 선포했다. Puff Daddy의 2Pac 살해 의혹이나 MGK의 새로운 커리어가 현실화된 것은 조금 이후의 이야기이다.



Kendrick Lamar vs Drake

도화선 Future, Metro Boomin - Like That(2024)

시작은 언제부터였을까. 2013년 "Control"? 2015년 "King Kunta"? 혹은 그보다 훨씬 이전? 분명 장르의 기대주로서 아낌없이 서로에 대한 존경을 보내던 Kendrick Lamar와 Drake의 관계는 언제부턴가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Drake와 J. Cole의 "First Person Shooter" 내 'Big 3' 언급 4개월 후 Kendrick Lamar가 Metro Boomin과 Future의 "Like That"에 피쳐링하며 현대 힙합 최대 규모의 디스전이 시작되었다. 광인의 감각으로 랩을 하며 자신의 특기인 다중의미가 내포된 라인으로 선전포고하는 켄드릭은 패배한다는 미래 자체를 상정하지 않았다. 이후 Rick Ross, The Weeknd, A\$AP Rocky, 심지어는 Kanye West까지도 참전하며 Drake와 타 아티스트 간 문제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던 것이 반쯤 확실시되어갔다. 그들은 Kendrick Lamar가 일종의 선봉장이 되길 희망했던 것 같지만, 정작 Kendrick은 그저 디스전 정도에서 멈출 생각이 없었다. 그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훨씬 오래 전부터 철저히 개인적인 Drake의 사형을 계획하고 있었다.

족발 Kendrick Lamar - meet the grahams(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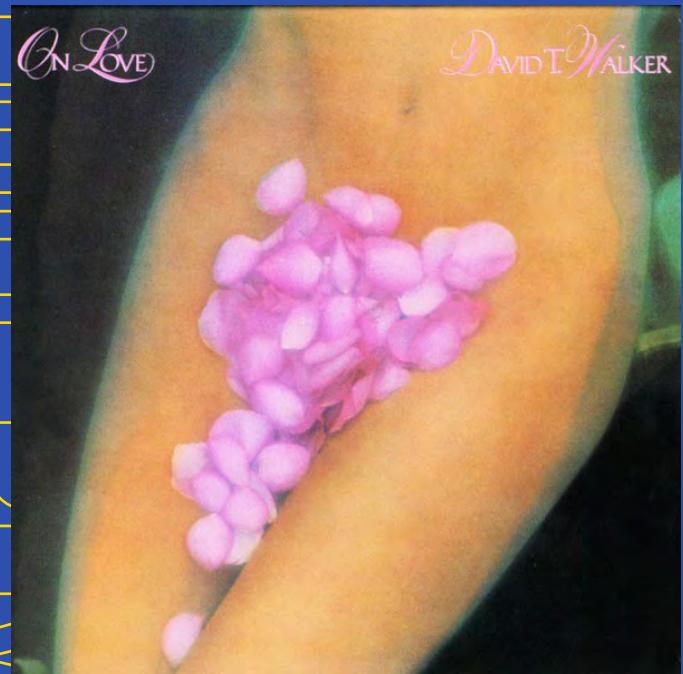
Drake은 "Push Ups"와 "Taylor Made Freestyle"을 연달아 발표하며 그의 체급을 과시함과 더불어 Kendrick를 서서히 도발했고, 강력한 우방처럼 보였던 J. Cole은 "7 Minute Drill"을 삭제한 후 링에서 이탈했다. 그리고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Kendrick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euphoria"는 두 차례의 비트 스위치와 세계 최고의 랩 스킬로 무장한 순수 혐오 선언문이었고, "6:16 in LA"는 Al Green 타입의 주술적인 출사표였다. 이에 대항한 Drake의 "Family Matters"는 분명 훌륭한 디스곡이었으나, 그는 Kendrick의 경고를 경청했어야 했다. 고작 1시간 만에 발표된 "meet the grahams"는 들춰선 안될 어두운 진실을 비추고 있었다. The Alchemist의 공포스러운 드럼리스 비트 위 Kendrick은 Graham 가문을 그려내며 Drake라는 인물의 추악함을 전시하고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지 않았는가? OVO의 성 착취와 Drake의 소아성애, 그의 숨겨진 딸, 커버의 유출 사진까지, 퍼즐이 무서울 정도로 정확히 들어맞고 있지 않았는가? 물론 모든 것은 정황적이다. 그러나 Drake와 Kendrick 모두 디스에 대한 실제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과거의 디스전들을 판례로 더 충격적인 디스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의례지 않겠는가? 비트와 랩, 연기자의 역량과 스토리텔링의 구조까지 "meet the grahams"는 힙합에서 가장 공포스럽고 충격적인 디스곡이었다. 그리고 고작 하루 만에 "Not Like Us"가 공개되었다. DJ Mustard의 래칫 비트 위 Kendrick은 기꺼이 광대를 자처하며 Drake를 전미의 소아성애자로 낙인찍었고, 6월 19일의 전설적인 콘서트는 Kendrick가 힙합이란 문화 전체에게 지지받고 있는 우상임을 확실시하는 의식이었다. 씹쓸한 뒷맛을 뒤로 하고서라도 이 문화적 승리는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나에게, 우리에게, 어쨌든.



EDITOR'S PICK

FEATURED CLASSIC REVIEW

CLASSIC REVIEW



On Love David T. Walker

TRACK 1. On Love / 2. I Wish You Love / 3. Lovin' You / 4. Our Lives /
5. Windows of the World / 6. Feeling Feeling / 7. Kinda Sorta
/ 8. Let Me in Your Life / 9. I Get High on You

DATE 1976

EDITOR 온암

데이비드 T. 워커(David T. Walker)는 분명 미국 흑인음악 역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단일 인물은 아니다. 그러나 그는 그 연표의 중요한 순간에 언제나 함께 해왔다. 갑순 버드랜드 특유의 잔향과 그 음높이를 매혹적으로 조절하는 워커의 연주는 수많은 거장들의 선택을 받으며 60~70년대를 수놓았다. 심지어는 그의 시대를 명백히 지난 때에도, 그는 아티스트들에게 여전히 선택받았다. "On Love"의 낭만적인 스트링은 A Tribe Called Quest에 이어 The Alchemist에 의해 힙합의 가장 인상적인 멜로디 루프로 재해석되었고, 그 여파인지 "Windows of the World"의 도입부는 "oHio"의 첫 메인 루프로 사용되었다. 향수와 익숙한 사이, 꽃잎 사이 가려진 관능적인 선율을 확인하기 위한 유일한 방도는 역시나 직접 손을 뻗치는 것뿐이라.

WORLD HAUS OF MATTERS W/HOM



Boogiepop Phantom Original Soundtrack

TRACK	1. Happy End - Flare / 2. In Heaven - SiLC / 3. Penalty Taker - Audio Active / 4. Gataway - Susumu Yokota / 5. Delirious - SiLC feat 2k+D's of RED LINE / 6. Stormy Soup - AOA / 7. Boogiepop Me Up - Ming & FS / 8. A Furrow Dub - Sugar Plant / 9. Torso - Sadesper Record / 10. Snow Coast - Yoshihiro Sawasaki / 11. Unstability - Hidenobu Ito / 12. Pone - Rei Harakami / 13. Angel in the Dark - M.Y.K.N.
DATE	2000. 02. 25
EDITOR	감상주의

"나타났다면서? 죽음의 신 말이야... 부기팝!" 도쿄의 어느 도시 과담으로 서 소녀들 입에 오르내리는 바로 그 이름. 일본 신전기물의 기원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실체의 규명을 일절 허락지 않은 채 인간들의 일상에 초월적인 권능으로 조용히 최후의 선고를 내리는 비일상 그 자체다. 심판은 곧 각자의 근본적인 결핍과 삶의 회의 앞에서 이내 몰락하는, 나약하고도 보편적인 우리들에게 향해 있다. 테마의 심오함, 사이코 호러의 정서, 인물들을 집요하게 추궁하는 심리 묘사, 직관적으로 익히기를 완강히 거부하는 전개 등 작품은 난해함의 총체다. 그럼에도 라이트 노벨의 혁명이라 들리는 원작만큼, <부기팝 팬텀>은 애니메이션으로서 충분히 고유한 매력으로 넘쳐난다.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퇴폐적 세계는 개인적인 추상과 몽환을 특유의 문화적 감성으로 엮어 서로 유대하는 일본 전자음악가들의 세계와 닮아있다. 각각 다른 인물들의 이야기로 추동하는 작품의 음니버스 형식처럼, 앨범은 여리 뮤지션들의 다양한 장르와 연출을 망라한 컴필레이션이다. 바그너의 '뉘른베르크의 마이스터징거'가 부기팝의 휘파람에 의해 영광에서 공포의 소리로 변모하듯이, 서구권 거장들의 기술적 혁신은 재패니메이션의 마니아틱한 몽상으로 재탄생했다. 불안과 절망으로 일관해오던 몽상이 이윽고 초탈적 환상으로 전환될 때, 즉 레이 하리카미의 나른한 'Pone'이 훌러나오는 순간에 우리는 전율과 함께 깨닫게 될 것이다. 죽음의 신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진짜 이유는 해방과 구원을 위해, 인간으로서의 가장 고결한 모습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임을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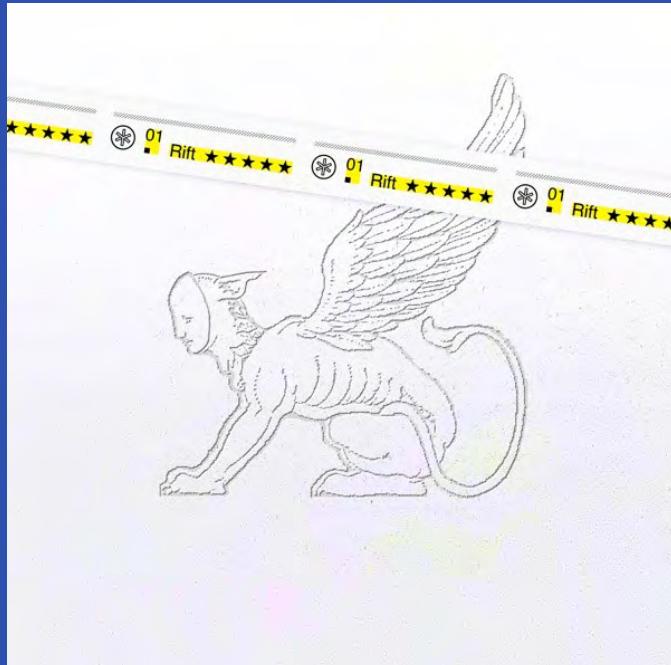
From Tokyo To Naiagara

Tujiko Noriko

TRACK	1. Narita Made / 2. Zipper / 3. Rocket Hanabi / 4. Mugen Kyuukou / 5. Kiminotamen Tokyo / 6. Tokyo Tower / 7. Robot Hero
DATE	2003. 06. 10
EDITOR	감상주의

감성과 몽환을 연결하는 지점에서 간혹 일본 인디 전자음악 아티스트들의 내향성과 초현실성은 '실험음악', '드림 팝', '인텔리전스'란 명목 하에 어느 정도 집단적으로 공유돼오던 서구권의 형식적 관습에 원전히 등떨어져 있을 때가 있다. 지식인을 흉내내는 어른들이라면 절대 모를 어느 아이의 괴이한 꿈에 기인한 무언의 세계가 있다고나 할까. 일례로 기술과 지성에 목매어 있던 전자음악 씬에 대응해, 투자노 노리코(Tujiko Noriko)가 첫 둥지 '애디션 메고'에서 <Shojo Toshi>를 통해 보여준 동심의 의외성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후 그녀가 다음으로 보여줄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폴라로이드였다. 정확히는 현실과 추상을 교차하는 하나의 성명서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From Tokyo To Naiagara>는 로렐 헤일로의 <Quarantine>에서 볼 법한, 코마 상태에 가까운 낯선 영역에의 고립 및 심리적 몽상을 형상화한다. 여기에 나리타 시와 도쿄, 혹은 저 먼 이국의 땅에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자신의 일상적 경험과 향수를 이식한다. 다만 그 향수가 <Shojo Toshi>의 아늑함이 아닌 'Rocket Hanabi', 'Tokyo Power' 등의 발작으로 말미암은 균열과 광란을 머금은 채로 말이다. 글리치 사이로 묘한 공감이 빛어낸 아름새는 그리하여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마저 엮기에 이른다. 03년과 24년, 오리지널과 리마스터, 두 시대의 도쿄, 이십 대의 풋풋했던 노리코와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오늘날의 노리코를 모두 하나로서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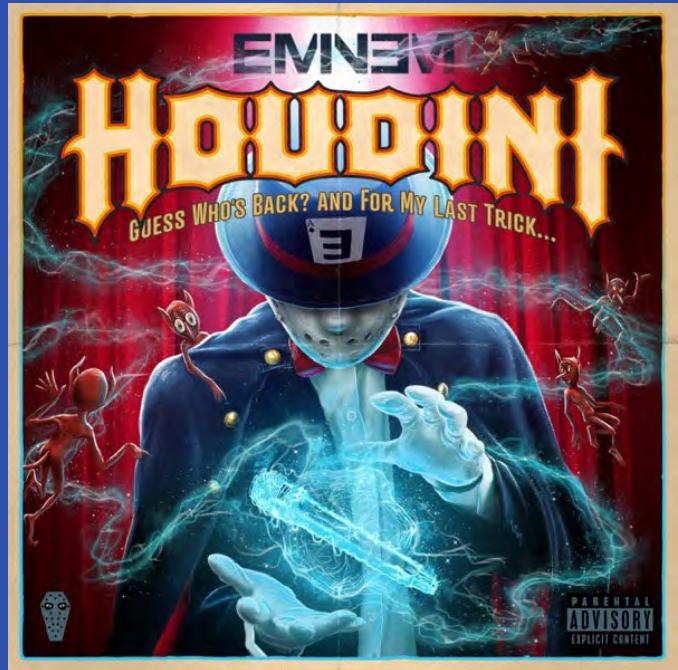
EDITORS' PICK



Rift One YEAR0001	
TRACK	1. Circles - Torus / 2. Sky Wheel - Chariot / 3. I Could Die - Namasenda / 4. Scrapyard 1v2 - DarkO & Graeme Norgate / 5. Anywhere - Bladee / 6. Mist - Bloodz Boi / 7. Still - Quiltland / 8. Powerbank - Lokey / 9. Wakening - oqbqbo & Scandinavian Star / 10. Wild & Beautiful - Ishi Vu / 11. Speed Goat - FAKETHIAS / 12. I'm Waiting for It (All the Time) - Varg ^{2™} & Mini Esco / 13. Mxe - MssingNo & HXE / 14. I Go I Go - Thaiboy Digital / 15. Burning Star - jonatan leandoer96 & 1985 / 16. Coda of the Freelance Av Technician - bod [包家巷] / 17. Basho Dew - Palmistry / 18. Prim - Quit Life / 19. All the Time - Mechatok / 20. Be by the Sea - Toxe / 21. Let It Burn - Xtos / 22. Sergelized - Nadia Tehran
DATE	2020. 07. 08
Rift Two YEAR0001	
TRACK	1. North - ESP / 2. Dayday - Nation / 3. Let's Make Out - RIP Swirl & Ydegirl / 4. Cream Soda - CLIP / 5. 2016 - Mechatok / 6. Lost - Namasenda / 7. One Touch - Golin / 8. La to Bcn - Thaiboy Digital / 9. Hold the Sky - Merely / 10. Mumu - ssaliva / 11. Shhhh (Just Outside) - TDJ / 12. Augment - DarkO & Fayt / 13. Reunion - Cotton Mouth / 14. Polchasa - Soft Blade / 15. Lamb - Malibu / 16. Dibiyu (feat. Ecco2k) - Evanora Unlimited / 17. 43% Hurt - Kamixlo / 18. Silica - 19 - Lokey / 19. Back 2 Me - Prof. Stranger / 20. Stab the Voice - Snow Stripper / 21. Clearing - Yawning Portal / 22. Valentine - Real Lies / 23. Scorch Grass - Oliver Coates & Johan Nilsson
DATE	2023. 01. 27
EDITOR	BlackMatter
<p>2015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 설립된 YEAR0001. 이들은 다양한 분야의 예술을 선보이는 아티스트들을 모아놓은 레코드 레이블이다. Cloud Rap을 선보이는 Drain Gang과 Sad Boys의 멤버들, Post-Punk 밴드 Provoker와 Viagra Boys, Varg^{2™}과 VilloVilduVeta, Merely 등 Electronic과 IDM을 선보이는 뮤지션들까지. 넓고도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의 한 곳에 모아놓은 YEAR0001의 컴필레이션 시리즈인 <Rift One>과 <Rift Two>는 아티스트와 장르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45개의 트랙 속에서도 놀랍도록 일관적이다. 형태가 희미하고 몽환적인 전자 악기와 싱잉 랩 위주로 진행되는 대략 세 시간의 여정은 조금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힘없고 우울한 북유럽 특유의 정서를 그 누구보다 선명하게 담아낸다. 다양한 국적의 아티스트가 하나의 분위기로 앨범을 이어나가는 모습은 본작이 긴 러닝타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흥미로운 경험으로 남을 수 있는 이유일 것이다.</p>	



EDITOR'S PICK



Where The Butterflies Go Dude Central

TRACK	1. Voicemail 1 / 2. Where The Butterflies Go / 3. I Want You / 4. Everything Happens For A Reason / 5. Think Of Me From Up There, I Can't Breathe, I Miss You / 6. Hey Mama / 7. I Can't Do This Anymore / 8. I Don't Wanna Grow Up / 9. I Love You, Goodbye / 10. Goodbye / 11. Voicemail 2 / 12. How To Live Forever
DATE	2024. 04. 05
EDITOR	자카

듀드 센트럴(Dude Central)의 데뷔 믹스테입 <Where The Butterflies Go>는 굉장히 특이한 작품이다. 유명 유튜버 Brad Taste In Music의 고평가 이후 AOTY 및 RYM 등지의 음악 리뷰 웹사이트에서 엄청난 지지를 얻고 있는데, 글쎄다. 이 앨범에 어떠한 점수나 음악적인 평가가 필요할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Where The Butterflies Goes>는 오히려 조잡하다. 믹싱도 깔끔하지 않고 보컬과 기타로만 이루어져 매우 단순한 대다가, 심지어 전곡이 원테이크로 녹음되었기에 불안정한 순간들이 연속해서 나타난다. 그런데도 이 앨범이 리스너들의 무한한 찬사를 받고 있는 이유는, 사람의 감정을 그 어떤 작품보다도 강하게 울리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본작을 관통하는 주제는 사랑하는 사람, 즉 가족의 죽음이다. 떠난 이들을 나비에 비유하며 애도를 하고, 어머니에게 현사를 바치기도 하며, 성장에 대한 두려움 역시 담고 있다. 그리고 듀드 센트럴은 이러한 감정들을 처절할 정도로 슬프게 풀어나간다. 비슷한 결의 작품 <Javelin>이나 <A Crow Looked At Me>를 기대하고 찾아왔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이 작품은 너무나도 간소하고 빼내밖에 잡혀있지 않다. 그러나 가족의 중요성을 담은 메시지는 완벽하게 전달되고 있다. 2024년 상반기 최고로 강력한 작품이다.

Houdini Eminem

TRACK	1. Houdini
DATE	2024.05.31
EDITOR	ryuzimoto

2002년, "Without Me"에서 '나 없이는 많이 허전할거야'라고, 자신만만하게 외치던 에미넴(Eminem). 당시에는 정말 이 가사가 사실이자 현실이었다. 하나 시간이 지나 점점 수많은 신예들과 기라성같은 래퍼들이 치고 올라왔고, 2010년대 중후반부터는 이 가사의 위력도 어느덧 희미해졌다. 물론 이후에도 꾸준히 정규작을 선보였지만,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하지만 꽤 시간이 지난 지금, 에미넴은 싱글 <Houdini>로 마술사 마냥 주문 아브라카다브라를 외치며 그때로 돌아왔다. Steve Miller Band의 "Abracadabra"를 샘플링 한 이 곡은 전성기 사고뭉치 에미넴의 향수를 진하게 느끼게 한다. 또한 "Without Me"를 방불케 하는 요소들도 존재한다. 당시 Moby를 디스하고 사회를 풍자한 것처럼 이번에도 Megan Thee Stallion를 포함, 여러 아티스트들을 비꼬면서 풍자를 서슴지 않는다. 물론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했기에 이는 과거보다 더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어찌겠는가? 불편하면 불름을 고쳐 듣자.

EDITOR'S PICK

brat and it's
the same but
there's three
more songs
so it's not



Brat and it's the same
but there's three more songs so it's not
Charli XCX

TRACK	1. 360 / 2. Club classics / 3. Sympathy is a knife / 4. I might say something stupid / 5. Talk talk / 6. Von dutch / 7. Everything is romantic / 8. Rewind / 9. So I / 10. Girl, so confusing / 11. Apple / 12. B2b / 13. Mean girls / 14. I think about it all the time / 15. 365 / 16. Hello goodbye / 17. Guess / 18. Spring breakers
DATE	2024. 06. 10
EDITOR	BlackMatter

PARTYGIRL. Charli XCX가 6번째 스튜디오 앨범 <BRAT>과 관련된 디제잉 행사에서 자신을 칭하는 이름이다. 그 이름에서도 드러나듯 찰리가 지난 16년간 전개해 온 음악은 파티 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 17살이던 2008년, 런던의 한 파티에서 시작된 Charli XCX란 이름 아래 Charlotte Emma Aitchison은 본격적으로 썬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2024년, 찰리는 2008년 자신이 사랑하던 런던의 레이브 썬으로 발걸음을 들렸다. Electropop과 Hyperpop, EDM 등으로 재무장한 찰리는 "Club Classics", "Von Dutch", "B2b" 등 미니멀하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비트들로 어둡고 뜨거운 광란의 현장으로 청자를 불러낸다. 동시에 "Everything is romantic", "So I" 등을 통해 내면과 섬세한 감정 등을 다루기도 한다. 클럽 속 사람들은 공통점보다 상이한 점이 더 많은 배경 속에서 자라왔지만 하나의 공간에서 하나의 음악에 함께 열광한다. 그리고 찰리는 자신이 그랬듯이 우리를 이들 중 하나로 변화시킨다. 다만 이번에는 자신의 음악으로 말이다.

Les Chants de l'Aurore
Alcest

TRACK	1. Komorebi / 2. L'Envol / 3. Améthyste / 4. Flamme Jumelle / 5. Réminiscence / 6. L'Enfant de la Lune (月の子) / 7. L'Adieu
-------	---

DATE 2024. 06. 21.

EDITOR BlackMatter

Shoegaze와 Metal에는 거대한 장르적 공통분모가 존재한다. 바로 노이즈로 이루어진 선율이 청자에게 불러일으키는 감정에 작품을 의지시킨다는 것이다. 슈게이즈는 Post-Rock과도 공간감이라는 연결고리로 밀접한 관계를 이룬다. 이 세 가지의 장르를 하나로 혼합시킨 Blackgaze는 더욱 훌륭한 감정의 촉매가 된다. 프랑스의 포스트 메탈 밴드 Alcest의 일곱 번째 스튜디오 앨범 <Les Chants de l'Aurore>는 그들이 항상 그래왔듯이 디스토션과 과성 속에 우울을 담아낸다. 그러나 이 우울이 어둡게만 표현되지는 않는다. 새벽의 노래들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어젯밤의 열기가 다가지지 않은듯한 뜨뜻한 열기와 선선한 새벽의 공기, 마지막으로 더해진 슬그머니 모습을 드러내는 몽환적인 햇빛을 연상시키는 풍성한 노이즈의 향연은 단번에 이해할 수 없는 그로울링과 함께 슬픔을 담은 그림을 그린다.

EDITOR'S PICK



khlhomofficial@gmail.com
@hausofmatters